금주의 법구-〈법구경〉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로운 삶이 최상의 생활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16일)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南北 함께 한반도 평화 발원

불기2562년 봉축법요식 조계사 등 전국서 봉행

조계사에 1만여 대중 운집
사회적 약자도 대거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 보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발표
"대승보살도 국민화합 회향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서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거행됐다. 특히 남북불교도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발원문을 발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차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올해 봉축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중앙종의회의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각 정당 대표와 서울시장 · 교육감 후보, 김부겸 행안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각국 주한외교 대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했다.

아울러 사회노동분야서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선 조계종을 위해 양윤경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김승하 KTX해고여승무원노조지부장과 정미정 조합원,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조지회장과 오수일 조합원,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법요식은 도량결계의식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명고 · 명종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송 △관불 △마정수기 △헌촉 · 헌향 · 헌다 · 헌화 △축원 △불자대상 시상 △봉축사 △대통령 축사 △법어 △남북공동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불교는 소중한 정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변경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에 방문한 관계로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통해 축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참으로 특별하다. 원래의 뜻과 이름을 찾고자 했던 불교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져 불자 여러분께서 염화미소를 지으실 것 같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스스로 깨닫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불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를 넘어 그 자체로 소중한 정신이자 문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파사현정,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한 뒤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승 대덕 스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국 사찰서 타종과 예불로 간절히 기도해주신 불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처음 일곱 걸음을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일성을 보이셨다. 이는 만천하에 본래부처를 선언하심이요, 생명의 존엄과 천부적 자유를 내보이시어 일체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본래의 성품인 참 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연등을 밝혀 부처님을 맞이하는 수승한 인연이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대신하는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가 국민통합으로 회향하는 공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사회적 동체대비의 실천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본래의 청정심을 회복해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일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북불교도, 통일보살 발원

한편 법요식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3년 만에 채택한 남북불교 공동발원문을 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불교도는 발원문을 통해 "대결과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 땅에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 시대를 갈망해온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들은 판문점 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법등으로 높이 들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의 법음이 높이 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넘치게 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백제권 최대 사찰 대통사지 보존된다

문화재청 매장분과위 '현지 보존 필요' 결의

공주시의 한옥주택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백제권 최대 사찰 '대통사지'의 보존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모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5월 16일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공주 '대통사터 추정지(반죽동 197-4번지)'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매장문화재분과 소속 위원들은 "대통사지 추정 발굴지는 현지 보존이 필요하며, 구체적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인접지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527년 성왕이 백제 수도였던 웅진에 창건한 사찰이다. 성왕은 중국 양나라에서 경전을 전해 받고 당시 황제였던 무제를 위해 사찰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사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존속됐지만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사 위치 확인 위한 사지 발굴 · 연구 초석 다져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부근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통사(大通寺)'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나와 사지였음이 밝혀졌지만 더 자세한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충남 공주시 반죽동 한옥주택부지 사전 발굴조사에서 대통사의 위치를 밝힐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하지만 해당 유물 출토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공주시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고도(古都)이미지 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대통사지의 온존한 보존 · 발굴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는 지난 5월 3일 흥사단 교육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사지의 온전한 조사와 보존을 문화재청과 공주시에 촉구했다. 당시 학자들은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이주책 마련 △대통사지 추정 지역 전체를 매수 후 장기 발굴 △대통사지 복원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 등을 제안했다.

이번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결의는 대통사지의 온전한 보존 · 발굴에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주시와 함께 대통사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번주 감면호(20면) 발행합니다



황금연휴 맞은 봉축 키워드 '가족'

주요사찰 가족 참여형 행사 잇달아 눈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랜만에 어머님,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연등도 만들며 가족이 추억을 쌓은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불기 2562년 봉축 주간은 여느 때와 달리 좀 더 특별한 주간으로 펼쳐졌다. 불교신자들이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린 것이다.

'가족'을 키워드로 진행된 봉축 주간 효과는 컸다. 각 사찰들은 많게는 15%가량 방문객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등공방'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300여 가족이 참여해 연등을 만들고, 가족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방에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아이들 등 3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대림동에서 온 김하영 어린이는 "아빠랑 함께 절에 나와 놀아서 기분이 좋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도 직접 공방을 찾아 연등을 만드는 아이들을 격려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신행활동이 펼쳐지길 기원했다.

조계사가 5월 19일 개최한 회화나무합창단 제2회 정기공연에서도 가족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으며, 봉축법요식이 펼쳐진 22일에는 어린이 불교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른바 황금연휴가 이어졌다.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 사상 첫 가족연등공방
봉은사 유아수계 15% 증가
지역서 가족축제 등도 펼쳐져
"가족 위한 공간도 마련돼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진 제1회 가족연등공방에 참여한 가족의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조계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찰들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들을 사찰로 이끌었다. 가정의 달은 맞아 어르신을 위한 효 큰잔치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만석승 놀이마당을 봉축기간 사찰에서 개최했다. 또 아이들을 위한 룸비니 포토존, 찻자리 등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봉은사 관계자는 "7회를 맞이한 봉축 유아수계법회에 지난해보다 많은 가족이 참여했고, 전통방식을 재현한 다양한 축제 무대에 가족단위 사찰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5%가량 방문객이 늘었다"고 말했다.

속초 신흥사도 19~20일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문화 생활축구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봉축 글짓기와 사생대회를 비롯해 청년부와 같은 연령별 축구대회 등이 열려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았다.

서울 국제선센터는 16일 다문화가족 40여 명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열었다. 데일리 템플스테이의 일환으로 △범죄피해교실(양천경찰서) △전통 민화 에코백 칠하기 △연등 소원빌기 등이 진행됐다.

이 같은 사찰의 변화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및 공간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은 "부처님오신날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사찰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가사노동에 지친 부모불자들이 사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편히 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웃종교계는 이미 놀이방, 키즈카페, 어르신 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자주위원회 설치 종령 공포

조계종, 위원 50인 내외 구성

조계종이 PD수첩 방영 이후 제기된 의혹 해소와 종단 자주권 수호를 위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종령을 5월 16일 공포했다.

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정을 증명으로 하며,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명예원로 4인, 원로회의 추천 원로의원 4인, 교구본사주지 5인, 중앙종회의원 5인, 선·교·율 분야 대표 각 3인, 비구니 대표 3인, 교역직종무원 4인, 15인 이내 교계중진급 승려, 재가자 대표 5인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종령의 효력이 종료하는 날까지다.

한편 종령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필요시 1차에 한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종무회의 결의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전○경 씨 친모 "설정 스님 친자 아냐"

조계종, 영상증언 확보·언론 공개… PD수첩 의혹 반박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은자 의혹과 관련해 딸로 지목된 전○경 씨의 친모 김○정 씨가 영상증언을 해 눈길을 끈다. 김 씨는 "PD수첩 방영 이후 자신 때문에 설정 스님이 피해를 본다는 걸 알게 돼 죄책감에 시달리다 논란이 허위임을 알리고자 나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5월 24일 미국서 김 씨와 종단 관계자가 면담을 하며 촬영한 영상의 녹취를 풀어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5월 7일 이뤄진 것이라고 조계종은 밝혔다.

녹취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경북 모 사찰에 거주하던 중 피치 못할 상황으로 임신하게 됐다. 전○경이 설정 스님 친자는 아니다"며 "속가 가족과 수덕사(원담·설정 스님)와의 인연이 있어 설정 스님에게 입양을 부탁드렸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입양가족과 저의 친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가족관계 등이 엉망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설정 스님을 상대로 친자소송을 제기한 배경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을 주선해주신 설정 스님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를 보살펴준 김 모 보살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하게 조언하셔서 소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설정 스님이 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것과 한국에 돌아가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 확인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심광사 전입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씨는 "출가 후 은사스님과 뜻이 맞지 않아 계를 받기 전 고민 끝에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일환으로 사찰 이름과 주소가 들어간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부탁드렸다"면서 "다른 비구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심광사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1년 전후로 주소지를 다시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김 씨는 "PD수첩을 본 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는 물론 설정 스님께서 저로 인해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몇날 며칠을 괴로워했다"며 "그동안 잊고 지내온 설정 스님에 대한 저의 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씻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끝으로 PD수첩 방영과 관련해 "본인에 대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로 진실인 듯 보도하며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무시한 처사에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분노 가득한 세상에 연등의 빛을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입니다. 연둣빛 잎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분노가 가득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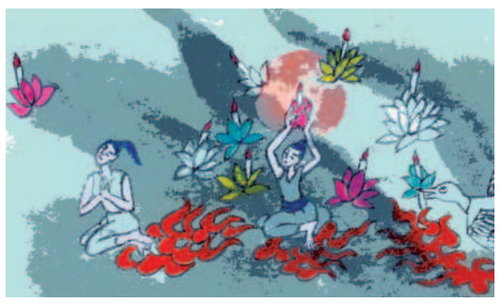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술취한 택시 승객이 가는 곳을 묻는 노인기사를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최악의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해마다 47~60명이 자지 않으면 입으로 짓는 네가지 업이 청정합니다.

무탐(無貪), 무에(無㤗, 무치(無癡)하면 마음으로 짓는 삼업이 청정합니다. 이상 10가지 청정한 10선업은 분노는 물론 번뇌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뽑는 실천적 수행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가르침을 풀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맙시다. 분노는 양잿물입니다. 화가 나있는 사람의 호흡을 30초 동안 모아 본 결과 실험용 쥐 60마리를 살상할 수 있는 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재앙입니다.



제목·지극정성-연등공양 그림·조향숙

초파일 연등공양 올리며
분노의 어둠 소멸 축원
'몸 입 마음'으로 善 행해야

분노가 올라 올 때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칭명 염불을 하세요.

*부처님오신날이면 불자들은 부처님께 연등(燃燈) 공양을 올리며 소원을 발원합니다. 각양각색의 소원이 있어 오색연등은 지혜와 자비의 빛을 더합니다. 연등의 빛은 탐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비움의 빛이고 아미타 대광명입니다.

올 부처님오신날, 삼천사 신도들은 분노의 어둠이 소멸하기를 발원하는 연등을 밝혔습니다. 분노의 업보를 다스리고, 세상의 분노가 사라지기를 축원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처럼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한 '마음의 연등'을 공양합시다. 이웃과 소통하는 마음의 연등은 분노 가득한 우리 사회를 밝히고 남북통일의 길을 여는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만가지 복이 성취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스님 위한 사찰음식 정규강좌 門 열다

불교문화사업단, 향적세계 종로 이전 후 첫 성과

12주 과정 초급반 강의 시작
향후 중·고급반 운영 계획도
전문조리사 시험 자격 부여
"사찰음식 대중화 이끌 인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대상 정규강좌를 수강 중인 스님들이 사찰음식 실습에 여념이 없다.

사찰음식 전문교육관인 향적세계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종로로 이전된 가운데, 스님들을 위한 정규강좌가 마련돼 사찰음식 대중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5월 17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2층 향적세계에서 '스님대상 정규강좌' 첫 문을 열고,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스님대상 정규강좌는 지난 6년간 향적세계에서 정규강좌를 통해 1100여 명의 수강생과 전문조리사를 배출했지만 스님을 위한 교육이 없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각 사찰 템플스테이 만족도 향상과 포교 일환으로 신청자가 몰렸다.

사업단에 따르면 기존에는 1개의 강좌만 운영하려 했으나 스님들의 신청이 늘어나 2개 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와 어느 정도 승랍이 되는 스님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먹는 것이 부족하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에 변화를 모색하는 일선 사찰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사찰음식이 대중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포교일환으로 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스님들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이끌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대상 정규강좌 초급과정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12주간 이어진다. 현재 A반과 B반 총 46명의 스님들이 수강신청 했으며, 중급과 고급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A반은 홍승 스님, B반은 동원 스님이 강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고급과정 수료 시에는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경 스님은 "1990년대 얼마 되지 않던 불교대학은 낯선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면서 "스님들의 사찰음식 교육도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나중에는 어느 곳에서든 익히고 가르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적세계는 2011년 4월 목동 국제선센터 지하 1층에 개관한 사찰음식 교육관이다. 초·중·고급 단계별 과정을 구축해 사찰음식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나 실습공간의 부적절성과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최근 종로로 이전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기존 향적세계는 환기가 어렵고,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불편함이 제기됐다.

새로 종로에 문을 연 향적세계는 총 103평 규모로 제1교육장과 제2교육장으로 구성됐다. 1교육장은 수강생을 동시에 24명 수용가능하며, 강사 조리대 위에 거울을 달아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꾸몄다. 2교육장은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조리교육 공간으로,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로 마련했다.

원경 스님은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행사를 열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결국 같은 스님을 계속 모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교육관 확대와 커리큘럼 체계화 등에 더 힘을 쏟는다면 사찰음식의 질적·양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세계가 목동에서 종로로 이전했지만 목동 시설은 국제선센터에서 사찰음식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행 스님 원력, 모두 더불어 이루어 가길"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6주기 추모 다례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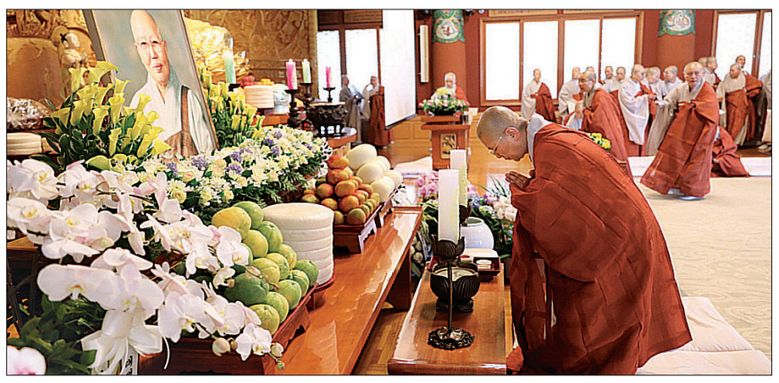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대행 스님의 구제중생 원력과 교육·포교 일신에 공헌한 뜻을 기리는 추모법석이 열렸다.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5월 15일 안양 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스님 6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본원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태국 등 국내외 지원에서 온 3000여 대중이 참석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제자로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수행 정진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음원으로 봉정돼 의미를 더했다. 녹음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맡았으며,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선원 주지 혜솔 스님이 부처님전에 봉정했다. 한마음선원은 지난해 대행 스님 5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뜻으로 푼 금강경'을 봉정한 바 있다.

다례재는 예불에 이어 헌화·헌향·헌다, 조사영반, 추모 영상 상영, 음성 공양, 금강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영상에서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을 잡고 마음공부를 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선다"며 대행 스님이 1990년 창립한 한마음선원 거사신행단체인 '법형제회'의 28년 발자취와 함께 아버지가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스님의 거사포교에 담긴 속뜻를 담았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봄에는 많은 꽃이 피고,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마음의 꽃을 피운다. 꽃을 보면서 괴로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그 꽃은 부처님과 같다"며 "대행 스님께서는 인내의 결과로 얻은 밝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새겨 꽃과 같은 향기를 이웃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그로써 모두가 아름답게 미소 지을 때 이 땅이 바로 정토세계가 된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이 묘공당 대행 스님 영전에 헌향한 뒤 합장배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중은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행 스님을 기리는 스승의 은혜를 합창했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대행 큰스님 제자로서 모자람이 없게 큰스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감으로써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봉정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외 한마음선원 한글 예불 의식문 음원들은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안양=윤호섭 기자


조계종과 봉은사가 미국 경매를 통해 환수한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의 모습.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4폭 중 1점으로 제2·4대왕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이 같이 시왕들이 함께 배치된 구도는 한국에서는 화엄사 시왕도에서만 나타나는 독창적 구도다.

봉은사 시왕, 반세기만에 제모습 찾다

美경매통해 시왕도 환수… 독창적 구도 도상 '눈길'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봉은사의 시왕도가 종단과 해당 사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로 반세기만에 제자리에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봉은사 시왕도(奉恩寺 十王圖)' 환수공개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봉은사 시왕도는 18세기 조성된 4폭 중 1면으로 크기는 117.2×117.2cm이며, 화기와 장황은 절취됐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는 종단과 사찰,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지난 4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 모니터링 중 미국 경매시장에 '시왕도' 1점을 발견했고, 이를 조계종에 알렸다. 조계종은 곧바로 동시기 추정 시왕도를 이를 통해 해당불화가 18세기에 조성된 〈봉은사 시왕도〉 4폭 중 1폭임이 확인했다. 나머지 3폭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에 봉은사와 조계종 문화부,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당 성보의 정밀 조사 및 환수를 위한 환수추진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봉은사 시왕도'는 지난 4월 24일에 미국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 받았으며, 원래의 봉안처인 봉은사로 돌아왔다.

이번에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불화는 화풍 상 18세기 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 인종(印宗), 영인(永印), 도준(道俊) 등의 불화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환수된 시왕도는 본래 봉안처인 봉은사로 돌아갔으며, 봉은사는 이를 기념해 16일 오후 2시 환수고불식을 봉행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상담개발원·한국자살예방협회 손잡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불교상담개발원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과 한국자살예방협회(협회장 오강섭)는 5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OECD 자살률 1위란 오명을 안고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양기관 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사회 활동 증진 등을 목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공동 사업 확산을 위한 언론 및 대외 홍보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 △기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이다. 노덕현 기자



새로운 모색 박범훈 베스트 콜렉션

6월 1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니르바나' 등 총 6곡 연주
이시하마 타다오, 김애라 등 협연
"회고무대 아닌, 새로운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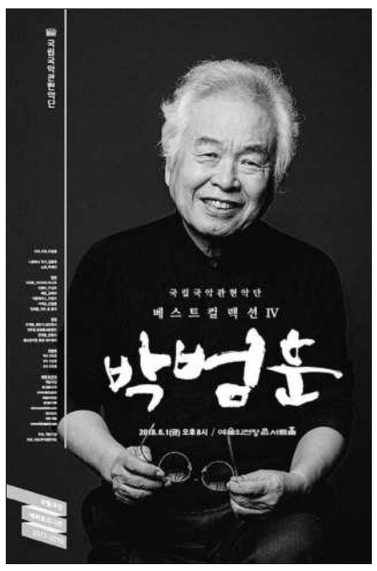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국악관현악단은 6월 1일(금)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스트 콜렉션 IV-박범훈'을 개최한다. '베스트 콜렉션'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15년부터 선보인 시리즈 공연으로, 올해는 국악과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온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박범훈은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작곡한 두 곡을 포함해 총 여섯 곡의 연주곡을 선보인다. 공연은 '달마동점'으로 문을 연다. 1997년 작곡한 북인도의 현악기 시타르 협연곡 '동점(東漸)'을 수정 · 보안해 새롭게 선보인다. 15세부터 시타르를 연주한 이시하마 타다오가 협연한다.

이어 박범훈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두 곡이 연주된다. 2013년 초연했던 해금협주곡 '가리잡이'를 김애라와 협연하고, 가야금 협주곡 1999년 초연했던 '가야송'을 김일륜과 협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초연되는 단트롱(Dan Trung) 협주곡 '베트남 아리랑'은 베트남 전쟁의 아픈 역사를 딛고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박범훈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단트롱은 대나무로 만든 베트남의 전통 유율타악기로 대중에게는 아직 생소한 악기다. 세계무대에 단트롱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까오 호 응아(Cao Ho Nga)가 내한해 아리랑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초연 곡 '니르바나(Nirvana)'는 도울 김용옥의 시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약 250여 명의 합창단과 박애리의 소리가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공연장을 환희와 열기로 가득 채울 것을 기대된다. 도올은 초연 곡 '니르바나'에 대해 "완숙한 해탈의 경지에서 우러나온 박범훈 지고의 작품이다"고 공연의 기대감을 밝혔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5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박범훈은 한국 최초의 사설국악관현악단인 중앙관현악단을 창단했고,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과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한 · 중 · 일 대표 음악가가 연합해 만든 민족악단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에도 기여했다. 국악기 개량사업과 대중화에 힘썼고,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한국음악계의 혁명과도 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송', 찬불가 '찬미의 나라', '무상계', '부처님오신날' 등 수 많은 곡을 작곡했고, 〈한국불교음악사연구〉 등을 집필해 불교음악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공헌한 바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불교음악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훈은 "이번 공연은 음악 인생을 회고하는 무대가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문의 (02)2280-4114

국보 '화엄사 사사자 석탑' 보수 들어간다

국립문화재硏 · 구례군 23일 협정 체결… 체계적 수리 진행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석탑 중 하나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 · 사진)의 보수가 본격화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와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5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의 보수를 위한 상호 업무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사자 삼층석탑 보수에 대한 구례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학술조사연구, 구조보강,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기반 조성, 건축 · 보존과학 · 고고학 · 지반공학 등 인접분야의 융합연구 · 훼손부재의 보존처리 · 보수설계 · 석탑 조립과 주변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과정은 기록화해 교육과 연구 자료로도 활용된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놓고 정상에는 상륜부를 구성한 형태인데, 상층기단에 놓여있는 4마리의 사자와 승상(僧像)으로 인해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여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문화재의 현장 공개, 기술교육, 공개학술행사 추진 등을 진행해 보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디지털인문학시대, 불교학 방향은?

디지털인문학시대에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6월 2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세미나실에서 '디지털인문학과 불교-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의 미래'를 주제로 봉축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문학 연구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등이 조명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의 '디지털인문학과 불교' 기조강연을 비롯해 △중국불교문헌의 문자인식(OCR)(도날드 스토젼, 하버드대) △중국불교사에서 누가 '중심' 인가?(마르쿠스 빙엔하이머, 템플대) △불교문헌 분석에서 N-grams의 활용(박보람, 동국대) △불교사원의 3D 모델링(모로 시게키, 화원대) 등이 발표된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 겸 인문한국(HK)연구단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가 무한대의 지식정보를 조건에 의해 생성되는 연기법으로 수렴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적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불광연구원, 6월 1일 토론 주제 학술연찬회

현대사회에서 소통은 큰 의미를 가지며, 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지혜를 나누는 불교적 토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음을 여는 문답 지혜를 나누는 토론'을 주제로 봉축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불교에서 보여진 토론의 역사부터 전법을 위한 토론 기법까지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는 '문답과 토론의 이론적 원리와 자세'를,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부처님의 문답과 초기불전에 나타난 토론'을,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대승경전과 논사들의 문답과 토론'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전법을 위한 문답과 토론기법'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중표 전남대 교수, 허우성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토론이라는 불교 전통을 조명하는 것은 신행생활에 깊이를 더하고, 전법과 교화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⑧

손선희 울산대학병원 봉사자

봉사는 보시행…"봉사 날 기다려져"



손선희 봉사자는 남편의 추천으로 2009년부터 정토마을서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신심이 생겨 행복하게 봉사를 시작했다는 손선희 씨는 이제 봉사를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항상 보람을 느껴요. 봉사라는 게 애초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을 봉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뿌듯합니다. 내 몸이 성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찾아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책임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 씨도 처음에는 호스피스 봉사가 힘들었다. 일반 병실에서 호스피스로 오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예민해지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봉사자들의 봉사도 거부한다. 이때 봉사자들과 도반들은 함께 환자의 마음을 열기위해 노력한다. 처음에는 봉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반응에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환자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 손 씨는 스스로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4년 전, 완강하게 봉사를 거부하던 청년이 기억나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암 투병을 오래해 매우 까탈스러웠어요. 1인실에서 봉사도 거부했죠. 너무 어린나이에 호스피스에 와서 민감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사코 봉사를 거부하던 청년이었는데, 마지막 갈 때가 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봉사자들을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때 청년과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손선희 씨는 월요일 마다 병동에 가서 환자들의 세발, 목욕, 마사지 등을 돕는다. 지난 월요일에는 새로운 도반이 함께 했다. 같은 불자였던 그 도반은 시부모님을 호스피스서 모시다가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명의 봉사자가 또 다른 봉사자를 만드는 것이다. 몸이 허락할 때 까지 평생 호스피스 봉사를 하겠다는 손 씨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佛紀 2562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청
교구청장 진광
종무국장 원영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 일
원 주 조정자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 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 총무 김영애
거사림 회장 이경철
홍련회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 FAX 051)583-6362

21세기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 김성규
통섭불교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격월간지 통섭불교
◇ 통섭불교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아함경 이야기)
◇ 통섭불교참선수련 (매주 목요일)
◇ 통섭불교사이버대학 www.tongsub.com
◇ 철야참선법회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TEL 053-621-2256

금정산 부전선원
불교중흥실천협의회
화 엄 선 림 회
전국선원수좌후원회
사부대중일동
제5차 참선대법회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2018년 11월 11일 오후 14시
(장소 미정)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246~5
TEL 051-505-5078



길상사 일요가족법회

고통은 業서 비롯…"알아차리고 현재를 살라"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비롯해 가족 여행을 가기 좋은 연휴들이 많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 5월 20일에 있었던 길상사 가족법회에서 효록 스님은 가족이 얼마나 연기돼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있었다고 말했다. 효록 스님은 모든 것은 연기돼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야 한다. 또한 고통을 마주했을 때에는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주제 : 고통으로부터 해방

효록 스님 여래심리상담연구소 소장



효록 스님은… 본사는 청암사로, 상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자아초월상담학 박사이며,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불교상담학회 수퍼바이저를 역임중이다. 현재는 여래심리상담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오늘 저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까요? 나의 고통이든 다른 사람의 고통이든 불교는 고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해탈을 향해 갑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즐거울 락(樂)이고 극락(極樂)이라고 하잖아요. 살아 있을 때든, 죽을 때든. 그것이 나의 고통이든 다른 사람의 고통이든, 불자라면 고통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고통에 관련해서는 인류 역사상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에서 시작했고, 하나는 서양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된 철학이기도 학문이기도 종교기도 하죠.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첫 시작이 고집멸도잖아요. 마음에 관련한 고통의 해결에 260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게 불교에요.

또 서양서 시작한 한쪽의 큰 흐름이 있죠. 심리학이자 상담심리치료입니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역사가 130년 됐습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할 때는 심리학과 불교가 서로 별개의 것처럼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심리학이 1950년대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은 40-50년 됐습니다.

살아가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 있으시죠? 실감나게 표현하면 욕망, 욕구입니다. 이 욕망과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게 막는 걸 불교에서는 이를 업(karma)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생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전자 프로그램', 세 번째가 '자궁 속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 전생 프로그램

먼저 첫 번째 전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죠? 자아초월 상담학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보통 3살, 4살쯤 되면 전생 얘기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생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언어가 트이는 경우죠. 오늘 저는 'LSD'라는 약물을 통해 연구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LSD는 환각제에요. 신종 마약류인데 먹게 되면 한 시간 안에 어떤 상태에 도달합니다. 다른 마약을 사람들이 먹을때는 왜 먹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LSD라는 약물은 다른 마약과 달리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무색 · 무취의 백색 분말가루인데 한번 사용하게 되면 같은 양의 다른 마약에 비해 효과가 300배 정도 된대요.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적으로 자기가 자궁 속에 태아였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생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머니의 심장박동소리가 어땠는지. 혈액순환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 이야기 하고. 말하는 사람의 학문 수준을 넘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요. 자기가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했던 생각, 느낌,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받았던 충격 까지도 생생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 고통온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 해방 목표
내 고통 알아차리고 느낀 다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사라진다

또 공통적으로 자기 친척들이나 자기 조상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까지 구술한다고 해요. 수 십년에서 수 백년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도 하고. 나중에 확인 해보면 전부 사실이라고 합니다. 동물이었을 때, 식물이었을 때 느낌까지 전부 기억하고. 선사시대에 암컷이었는지 수컷이었는지까지 다 기억한다고 해요. 너무 넘치도록 풍부한 자료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들을 점검해보면 전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아주 중요히 생각하는 게 지금 이순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중 현재에 머물고 있대요. 고통스러운 사람일수록 과거를 생각해 후회, 원망을 하거나 미래를 생각해 막연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죠. 행복도가 높아지려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해요. 두 번째로 이분법이 사라진대요. 우리가 전부 연결돼있다는 것을 자각한대요. 세 번째로 상대성에 대한 자각이 명료해지는데, 박테리아나 신, 곤충, 사람이라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돼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번째가 무한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요 아주 밝은 흰 빛을 보게 되고, 생(生)과 사(死)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죽으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지만요.

두 번째 업: 유전자 프로그램

두 번째 유전자 프로그램이에요. 과거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키, 몸무게, 머리색 등은 2%밖에 유전이 안된다고 밝혀졌어요. 초기 과학자들은 나머지 98%를 해독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필요 없는 유전자 취급을 받게 되고 그렇게 'Junk DNA(쓸모없는 DNA)'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은 화학이 많이 발전해서 밝혀졌죠. 놀랍게도 실제로는 부모님의 감정, 행동, 성격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유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3대가 유전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 어머니, 할머니가 3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외할머니 뱃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임신한지 5개월 쯤 되면, 앞으로 장차 나로 만들어질 난자의 세포가 엄마의 난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장차 앞으로 만들어질 나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한 몸에 있어요. 최소한 4-5개월은 같이 있죠. 그러면 할머니가 우울하면 엄마도, 나도 우울하죠. 남자의 경우, 앞으로 남성으로 만들어질 정자의 세포가 할머니의 자궁 속에 아버지가 태아로 있을 때 이미 아버지 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거사님들과, 아버지와, 할머니는 애초에 같은 몸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DNA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해봐요. 아기에게 영향을 주겠죠. 어머니가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화를 내거나 두려움을 느끼면 태아 때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울함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만 했는데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자살하고 싶은 충격이 계속 일어나셨던 분이 있어요. 이유를 전혀 몰랐다가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태내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 엄마가 죽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계기로 어머니의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이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업: 자궁 속 프로그램

세 번째 자궁 속 프로그램은 크게 네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자궁에 착상해서 2개월까지. 두 번째가 2개월에서 9개월. 만삭. 세 번째가 분만 과정. 네 번째가 태어나서 처음 6시간.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부터 보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아기가 생긴다고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버지의 정자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난자가 있어야 하고, 준비된 영적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개의 합이 딱 맞아야 임신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가 처음 착상해서 2개월까지, 아기한테 이때는 천국이에요.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탄생돼요. 무(無)에서 유(有)가 만들어지죠. 2개월에서 9개월까지 기간에는 어머니의 한 생각, 한 생각에 아이가 영향을 받죠.

또 분만 과정인데, 아기가 자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아기가 첫 번째 분리를 경험해요 분리감. 외로움, 허전함, 공허감 이런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분리를 느끼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번째 태어나서 6시간 까진데, 예전에는 딸이 많으면 딸을 낳았을 때 저기로 밀쳐뒀죠. 아는 분이 4째 딸인데, 태어나서 4시간동안 방치됐다고 해요. 이때 '나는 혼자구나' '세상에 나 혼자 뿐이구나' 하는 감정이 생겼죠. 지금 50대인데 살면서 가족들한테 평생 '어떻게 너는 너밖에 모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대요.

지금까지 소개한 게 자궁 속 프로그램이에요. 자궁 속 프로그램에 4가지. 그 다음에 무의식 프로그램이 있고, 6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경험한 이후에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누적돼서 여러분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인간이 받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든, 공허함이든, 불안감이든, 화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알아차림입니다. '고통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우리 몸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후엔 그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면 대개 불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쇼핑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불안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수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외롭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심으로 정성드려 한획씩 써내려간 경구들....

아래 경전은 (銀) 98%의 미세(나노급)한 銀가루로 1차 집필후 2차 금분으로 덮어 집필한 세계 초유의 경구들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은(銀)의 효능

인체에 유해한 균을 소멸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인터넷 : 순銀의 효능을 참고 바랍니다.

규 격

◆금강경 : 8폭 360cm × 180cm
6폭 270cm × 180cm
◆반야심경 액자형 : 70cm × 40cm
◆족자 : 맞춤제작

구입가격

◆금 강 경 : 8폭 550만원
6폭 550만원
◆반야심경 : 액자형 45만원
족자형 40만원
◆가격 문의시 절충가능

구입하는 불자님께서는 금강경, 반야심경 말미에 존함을 써 드립니다.

◆구입및 문의전화 : 법지스님 010-2604-6511,
집필한 불자 - 초암 류성열 031-845-3598, 010-8988-3536

‘佛殿’ 중요치 않은 당송시대 선종사원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⑩ 선종사원의 불전(佛殿)과 소임자 지전(知殿)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전(佛殿)보다는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영파 천동사처럼 ‘불전’이라고 한다. 사진은 중국 영파 천동사 불전

(1) 불전(佛殿)

‘불전(佛殿)’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칠당(七堂, 일곱 개의 중요한 당우)’의 하나이다.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주로 ‘불전(佛殿)’이라고 하고, 사찰에 따라서는 ‘대웅보전’이라고도 현판을 붙이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전(佛殿)이라고 쓰지 않고(과거에도 쓴 경우가 없음) ‘대웅전(大雄殿)’ 또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영파 천동사처럼 ‘불전’이라고 한다.

‘대웅전’, ‘대웅보전’이란 ‘위대한 분을 모신 전각(殿閣)’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는데, ‘번뇌를 끊고 열반을 성취한 위대한 분’ 또는 ‘불교의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다. 불상 안치에서 ‘대웅전’이라고 하면 모셔져 있는 주(主)부처님 즉 주불(主佛)이 반드시 석가모니부처님이어야 한다. 석가모니불이 아니면 대웅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불전을 ‘금당(金堂)’이라고 한다. 대구 동화사가 그런 경우인데, 곧 ‘금색당(金色堂)’이라는 말로, 금색 부처님(불상)을 모신 곳이라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본당(本堂)이라고 한다. 일본 나라에 있는 호류지(法隆寺 · 법륭사)는 일본 최초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특히 백제의 고승 담징 스님이 그렸다고 하는 ‘금당벽화(金堂壁畵)’로 유명한데, 아쉽게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그 후에 다시 그린 것이다.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불전이 없었다. 불전을 두지 않았는데, 적어도 당나라 말까지는 없었다. 대웅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도 모시지 않았다. 이유는 목불이나 석불 등은 조각한 것일 뿐, 아무런 지혜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신앙의 대상일 뿐, 부처의 참모습, 진상(眞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최초로 율종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종사원을 만든 당 중기의 선승 백장회해(720~814)는 그 운영원칙인 청규(淸規)를 제정하면서 ‘불립불전(不立佛殿, 불전은 세우지 않고) 유수법당(唯樹法堂, 오직 법당만 세운다)’을 명문화하여 불변의 원칙으로 정했다.

선종사원에 다시 불전(대웅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당말을 지나 오대(五代) 송초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비로소 신자들을 위해 마지못해 불전이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위상은 우리나라 산신각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고, 그 위치도 오늘날처럼 가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모퉁이에 있었다. 말하자면 부속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

불전이 법당(법당은 설법당의 준말.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전으로 혼칭하고 있으나 잘못임)과 함께 가람의 중심이 되어 크게 건축되기 시작한 것은 북송이 망한 후인 남송 때(1127~1279)이다.

북송이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수도 카이펑(開豊)이 함락되고 사실상 북송은 망했다. 황족 일부가 수도를 항주로 이전하여 금나라와 강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때부터 남송이라고 한다. 금나라에 일격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던 송나라는 항주의 남송시대를 맞이하여 실지회복을 꿈꾸었다.

남송은 선종사원에서 황제의 수명장수와 국태민안을 기원했다. 남송시대 선종사원의 불전은 위상이 크게 바뀌어서 국가의 운명을 기원하는 중요한 원찰 즉 기원도량이 되었다. 남송시대의 불전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황제와 그 국가의 운명을 비는 기도의 당우가 되었다. 위치도 가람의 한 모퉁이가 아니고 가람의 중앙인 법당 앞에 세워져서 그 위상적인 면에서는 법당을 능가하게 되었다. 남송의 불전은 400여 년의 설움과 홀대를 떨쳐 버리고 우뚝한 기상으로 가람의 핵심 당우가 되었다.

남송 때 항주 영은사와 만년사 편액은 ‘불전(佛殿)’이었고, 천동사는 석가불 · 아미타불 · 약사여래불을 모셨다고 하여 ‘삼세여래(三世如來)’라는 편액을 붙였다. 원대 이후에는 주로 ‘대웅전(大雄殿)’ 또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는 편액을 많이 붙였는데, 우리나라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 밖에 노사나전, 무량수전 등 주불(主佛)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佛殿’은 석가여래 불을 모신 곳
당송 선종사원, 佛殿 · 불상 거의 없어
“목불 · 석불은 조각일 뿐”
佛殿, 남송부터 가람 핵심 당우
지전은 불전 소임, 향과 등 담당

(2) 지전(知殿)

지전은 6두수의 하나이다. 선종사원의 요직으로 불전(佛殿, 대웅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임이다. 대웅전의 향화(香火)와 기도, 의례(儀禮), 불공(佛供), 청소, 관리 등 불전에 관한 모든 것은 지전이 관장한다. 물론 청소 같은 것은 주로 지전 밑에 있는 행자들이 한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禪苑 規)〉 4권(1103년) ‘전주 · 종두(殿主 · 鐘頭)’ 항목에는 그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주(殿主, 지전) · 각주(閣主) · 탑주(塔主) · 나한당주(羅漢堂主) · 수륙당주(水陸堂主) · 종두(鐘頭)는 전각 안의 먼지를 털어서 깨끗하게 해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바르게 정돈해야 한다. 또 일(행사나 예불)이 있을 때에는 청소하고 향과 등불을 잘 정돈해야 하며, 그 후에는 방석 등 자리를 펴고 대중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기를 기다린다(殿主,塔主, 羅漢堂主, 水陸堂主, 眞堂主, 鐘頭, 拂拭塵埃, 列正供具, 以時 掃, 莊飾香燈. 參後展蓆, 以待衆人瞻禮(禪苑 規 4권 知殿)

또 〈칙수백장청규(ㅣ丨修百丈 規)〉 지전 항목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전은 모든 전당(殿堂)의 향(香)과 등(燈)을 담당한다. 수시로 먼지를 털어서 탁자가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혹 바람이 불게 되면 반드시 향로 안의 향불을 꺼야 한다. 그리고 번각(幡脚, 번의 끝자락)을 묶어 올려 등촉(燈燭, 등불)에 가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주의 향전(香錢, 시주가 향을 올려 달라고 낸 돈, 즉 우리나라 불전과 같다)을 호용(互用)하지 말라. 불탄일(佛誕日)에는 부처님 목욕할 물을 끓여서 대중에게 공급해야 한다. 4재일(齋日, 초하루, 보름, 8일, 23일. 8일, 23일은 천자를 위한 축성일)에는 전각의 문을 항상 열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라(知殿. 掌諸殿堂香燈. 時時拂拭塵埃, 嚴潔几案. 或遇風起, 須息爐內香火, 及結起幡脚, 防顧使勿近燈燭. 施主香錢, 不得互用. 佛誕日, 浴佛煎湯供大衆. 四齋日開殿門, 以便往來瞻禮).”

북송시대 1103년에 편찬된 장로종색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는 ‘전주(殿主, 佛殿의 主)’라는 소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주가 바로 지전이다. 그러나 북송시대 전주는 6두수에 속해 있지 않았다. 북송시대 전주(즉 知殿)은 ‘전주 · 종두(殿主 · 鐘頭)’ 등과 함께 묶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중하위직으로 그다지 중요한 소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전(佛殿, 대웅전)의 위상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전이 상위직인 6두수에 들어간 것은 남송 때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송시대에는 불전의 위상이 급상승하면서 법당과 동등해졌다. 국운을 기원해야 하는 시대적 역할이 컸기 때문인데, 인생사도 그렇지만 전각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조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주의사항으로서 “시주의 향전(香錢, 시주가 향을 올려 달라고 낸 돈)을 호용(互用)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칙수백장청규〉가 편찬되던 원나라 때(1338년)에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다.

남송시대는 불전에서 외우는 염불문이 있었을까? 남송 후기에 편찬된 청규들과 원나라 시대 염불문 등을 고찰해 보면, 북송시대에는 주로 십불명(十佛名)을 외웠고(그 외에는 밝혀지지 않았음), 남송시대에는 능엄주, 반야심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신묘장구 대비다라니, 십소주 등을 외웠다.

우리나라에는 지전(知殿)에 대한 이칭이 많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다양하다. 흔히 ‘가질 持’를 써서 ‘持殿’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틀렸다. 지전스님이 대웅전에서 목탁을 잡고 있으므로 ‘持殿’이라고 써야할 것 같지만, ‘知殿’이라고 써야 한다. 여기서 ‘知’는 ‘담당하다’, ‘맡다’라는 뜻이다. ‘전(殿)’은 불전(佛殿), 대웅전을 뜻한다.

6두수 가운데 장경각 담당을 ‘知藏(지장)’이라고, 접빈 담당을 ‘知客(지객)’이라고 하며, 욕실 담당을 ‘知浴(지욕),’ 불전 담당을 ‘知殿(지전)’이라고 한다. 모두 ‘知’자를 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일반 관직에도 ‘知’를 써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이 있었는데, 중추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광역 단체장인 ‘도지사(道知事)’도 한 도(道)의 일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전 외에 ‘노전(爐殿)’과 ‘부전(副殿)’이 있다. ‘노전(爐殿)’이란 향로전(香爐殿, 香閣)의 준말로서,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의 불단을 맡은 소임이다. 즉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에는 향로(香爐)를 관리하는 소임자가 거주하는 당우가 있는데 그 당우의 이름이 향로전(香爐殿, 香閣)이다.

또 부전이 있다. 부전은 불단과 큰방(衆寮) 관리를 맡은 소임이다. 운허 스님 편 〈불교사전〉(동국역경원, 1974, 개정판)에 따르면 “대웅전이나 적멸보궁의 불단을 맡은 소임을 노전(爐殿)이라고 하고, 큰방 불단을 맡은 소임을 부전(副殿)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부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부전(副殿)’이라는 소임은 노전이나 지전스님이 혼자서 불공, 기도, 법당 관리 등을 하다 보니, 일손이 모자라 노전이나 지전스님을 보좌한다는 뜻에서 ‘부(副)’자를 넣은 것 같다. 우리나라 큰 절에서는 대웅전을 맡고 있는 노전 밑에 지전이나 부전을 두어 지장전, 관음전 등 작은 전각을 맡게 하고 있다.

〈민족사 대표〉


▲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극락왕생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188호>

BTN 불교TV가 만든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장례!!! 불 국 토 상 조
불국토상조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불국토상조가 불교문화를 이어갑니다. 가입상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1577-7675

"불국토상조만의 불교전문 장례서비스 특징"
스님의 시다림 봉사
입관 및 성복제를 하는 동안 스님이 여법한 염불 집전을 해드립니다
장엄번 제단장식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장식을 통해 제단의 불교식 장엄함을 구현합니다
불경수의/ 지장보살상 위패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장경(금박)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대리점주 (장례포교사)를 모십니다. 상담문의 02-525-3370
부처님오신날 봉축할인 4.23 – 5.22(중복할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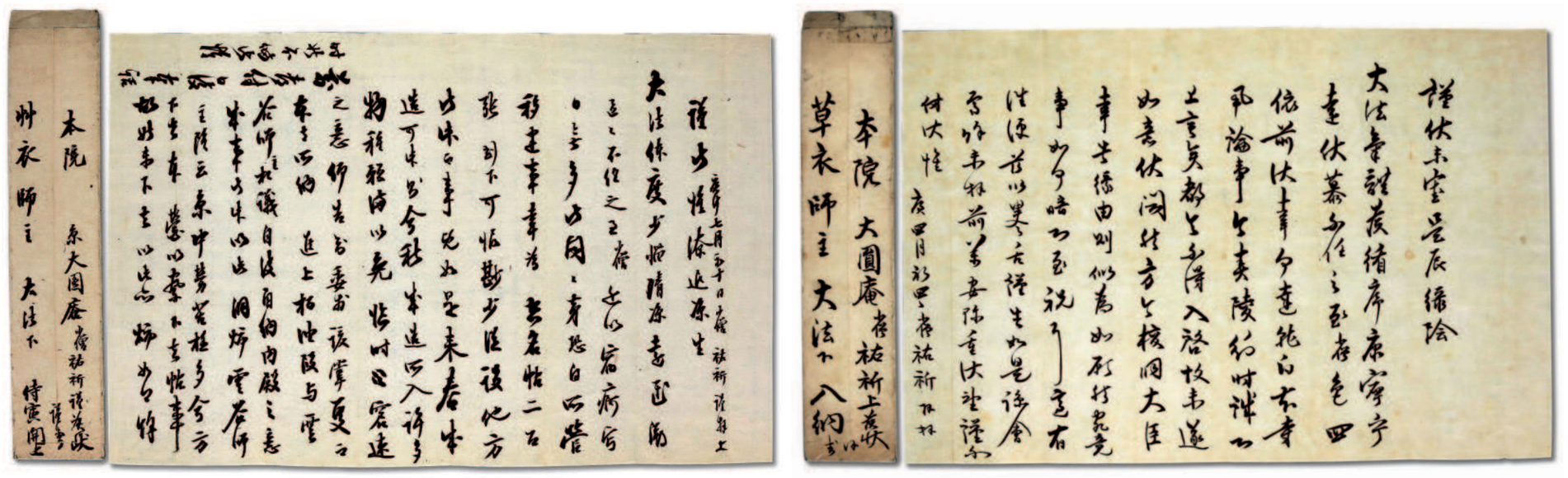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의 소중한 상조납입금을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조관련 중요정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tnlife.co.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대표이사 구본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 68호

공물 독촉 하소연… 팍팍한 조선 승려의 삶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⑩ 지봉 우기가 보낸 편지



지봉 우기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들. 사진 왼쪽이 1860년 7월, 오른쪽이 1860년 4월에 보낸 편지다. 특히 7월에 보낸 편지에는 대흥사가 내전에 바칠 동백기름의 양이 너무 과다해 이 같은 폐해가 얼마나 컸음을 알 수 있다.

1860년 4월 4일 우기(祐祈)는 초의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이 해 7월에도 거듭 편지를 보낸다. 당시 그는 대원암(大圓庵)에 머물렀는데 이 절은 아마 안암동에 위치한 절이라 여겨진다. 그의 법호 지봉(智峯)이다. 1860년 4월의 편지에는 교동대감에게 사중에 일을 부탁하는 내용이 보인다. 아마 교동대신은 당시 권문세가였던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아들 김좌근(金左根, 1797~1869)일 것으로 추정된다. 두 차례 보낸 그의 편지를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1860년 4월의 편지이다. 크기는 30.4×45.5cm이며 피봉엔 '대원암 소승 우기가 올립니다' 라고 썼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울창한 이때에 노스님께서는 두루 편안하시지요. 멀리에서 사모하는 마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소승의 모습은 예전과 같아 다행입니다. 앙달仰達하여 아뢉니다. 본사에서 거론한 일은 올 봄, 능에 행차하실 때 성심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령(都令)은 주문(奏文)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뜻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니 삼가 민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동대신(校洞大臣)에게 요행히 연유를 말씀드린다면 바라는 대로 될 듯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마무리 짓도록 연구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암암리에 마음으로 축원할 뿐입니다. 마침 가는 인편이 있어 이에 대략을 말씀드리니 삼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만안진중하시길 엎드려 기원합니다. 삼가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1860년 4월 4일 소승 우기 삼가 올립니다.

謹伏未審 是辰綠陰 大法氣體候 循序康寧乎 遠慕不任之地 小僧色四依前 伏幸 仰達就白 本寺擧論事 今春陵幸時 誠心上言矣 都令不得入啓 故未遂如意 伏悶 然方今校洞大臣 幸告緣由 則似爲如願 然究竟事如何 暗心至祝耳 適有往便 玆以 丶舌謹告如是 諒會焉 餘未拜前 萬安珍重 伏望 謹不備 伏惟 庚 四月 初四日 小僧 祐祇 謹拜

당시 본사 대흥사에서 거론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중에 긴요한 일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초의에게 "그러나 지금 교동대신(校洞大臣)에게 요행히 연유를 말씀드린다면 바라는 대로 될 듯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마무리 짓도록 연구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그가 말한 교동대신은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일 것이라 여겨진다. 세도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좌근은 영의정을 세 번이나 역임했으며 안동김씨의 중심인물이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초의는 1830년경부터 김조순이나 그의 아들 김유근과 교유했고 추사와도 막역했던 사이였다. 그러므로 우기의 생각으론 초의가 이러한 사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인맥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튼 우기가 부탁했던 일이 어떻게 수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사중의 어려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초의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 눈이 띈다.

한편 우기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대흥사와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이를 위해 그의 생애를 살펴보지만 그의 생몰연대를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흥사 승려로, 법호는 지봉(智峯)이며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하였다. 삼각산 도선사로 출가하여 인파(仁坡)의 제자가 되었고, 효인(孝仁)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표충사(表忠寺)와 적멸궁(寂滅宮)의 총섭을 역임하였다. 표충사를 중수한 공로로 전라도관찰사로부터 도감동차첩(都監董差帖)을 받았다. 이후 1845년 안암산(安岩山) 기슭의 개운사(開運寺)에 대원암(大圓庵)을 창건하였다. 절에서 지낼 때 물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보시를 하였는데, 어느 날 흥선 대원군이 그 물을 얻어 마시고 참서 직(參書職)을 주었으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 얼마 뒤 흥선 대원군이 다시 물을 얻어 마시고 판서 직을 내렸으므로, 이후로 사람들이 그를 지봉판서(智峯判書)라 불렀다고 한다. 제자로는 운구(雲句)가 있다.

바로 그가 표충사 총섭을 역임했고 도감동차첩(都監董差帖)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대흥사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그가 머물던 대원암은 원래 무학대사가 안암산 기슭에 세운 절, 영도사(永導寺)와 관련이 있다. 1779년 홍빈(洪嬪)의 묘 명인원(明仁園)이 절 곁에 들어서자, 인파(仁坡)가 절을 동쪽으로 2마장쯤 되는 곳으로 옮겨 짓고 개운사라 하였다. 1845년 우기가 대원암을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곳에 근대의 고승 정호(鼎鎬)가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여 불교계 지도자를 길러냈다.

한편, 그가 1860년 7월에 보낸 편지에는 내전에 동백기름을 진상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지금도 대흥사 동구엔 동백나무 군락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초의 당시에도 자생했던 동백나무인 셈이다. 특히 대흥사 동백기름은 진상품 중에 하나였던 셈이며 아마 운곡이 진상용 동백기름을 관리한 듯하다. 이 편지의 크기는 30.5×47.1cm이며 피봉엔 '한양 대원암 소승 우기가 삼가 문안하는 편지' 라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암동 대원암 주석한 우기 스님
1860년 4·7월 초의에 편지 보내
사중 문제에 도움 부탁들 담겨져
공명첩 불만… 폐단 확인된 사료

삼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장마가 물러가고 서늘해집니다. 큰 스님께서 근심이 적어 맑으시다 하니 멀리 위로됨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최근 숙병으로 편안한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민망하고 민망합니다. 다만 삼가 아뢉니다만 이건移建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은 다행히 공명첩이 200장이 내려 온다하더라도 매우 적은 것이나 한이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 설계한 것을 따라 조심스럽게 계획했는데 일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완성하도록 계획할 수 있고, 즉 금년 가을에 여러 가지 들어갈 물종을 미리 갖추어야 완성할 수 있으니 임시로 군속(窘速)한 마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해당 처에 알리시고 본사에서 진상할 동백기름은 운곡사주와 상의한 이후에 자진하여 내전에 진상할 뜻이 잘 성사되시길 삼가 계획하니 이로서 통촉(洞燭)하십시오. 운곡(雲谷) 사주가 설령 예전에 한양으로 진상하는 것은 노고가 매우 심하다고 말하더라도 지금 본영에 내려가는 것은 내려진 첩을 살펴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직 내려가지 않은 것도 이것으로서 다시 살펴보심이 어떨지요. 나머지 여러 가지는 다른 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1860년 7월 10일 소승 우기 삼가 올립니다.

謹伏惟 退凉生 大法體度 少惱淸凉 遠慰溯區區不任之至 小僧近以宿 寧日無多 伏悶伏悶 第恐白 所管移建事 幸爲空名帖二百張到下 可恨 丶少 從設他方伏計 而事旣如是 來春成造可計 則今秋成造所入許多物種預備 以免臨時窘速之意 仰告知委於該掌處 而本寺所納進上栢油段 與雲谷師主相議 自後自納內殿之意 成事伏計 以此洞燭雲谷師主 雖云京中勞苦極多 今方下去本營 以察下去帖事故 姑未下去 以此亦燭如何 餘萬都付日後奉話時 姑不備 伏惟 庚申 七月 初十日 小僧 祐祇 謹拜上

이 편지는 대흥사의 보수를 위해 공명첩이 내려온 내용이 보인다. 그가 '이건(移建)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은 다행히 공명첩이 200장이 내려 온다하더라도 매우 적은 것이나 한이 됩니다. 다른 지방에서 설계한 것을 따라 조심스럽게 계획했는데 일이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마 대흥사에 내려온 공명첩은 사찰을 중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받은 공명첩일 것이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공명첩이란 무엇일까. 이는 일종의 백지 임명장이다. 임란 중에 생긴 제도인데 군공을 세운 사람이나 납속(納粟: 흉년이나 전란 때에 국가에 곡식을 바침)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준 임명장이었다. 공명첩의 종류는 관직, 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이 있고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이 있다.

그리고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과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그러나 후일 이 공명첩은 국가의 재정이나 군량이 부족할 때나 진휼(賑恤: 흉년으로 곤궁에 처한 백성을 도와 줌)을 위해 발급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사찰을 중수하는 비용을 얻기 위해 남발하였는데 관리 소홀로 위조나 남수(濫授: 법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남발)하는 등, 그 폐단이 컸던 제도이다.

한편 우기의 편지에 "본사에서 진상할 동백기름은 운곡 사주와 상의한 이후에 자진하여 내전에 진상할 뜻이 잘 성사되시길 삼가 계획하니 이로서 통촉(洞燭)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보인다.

대흥사에서 내전에 올릴 동백기름의 진상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흥사에서 받칠 동백기름의 양이 너무 과중하여 "운곡(雲谷) 사주가 설령 예전에 한양으로 진상하는 것은 노고가 매우 심하다고 말하더라도 지금 본영에 내려가는 것은 이미 내려진 첩을 살펴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아직 내려가지 않은 것도 이것으로서 다시 살펴보심이 어떨지요"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따라서 대흥사 사중에서는 사중에서 진상할 양을 조정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납의 양을 줄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기가 언급한 운곡(雲谷) 사주는 누구일까. 초의가 가록해 둔 〈다비계안〉을 살펴보니 그의 법명은 의준(宜俊)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의 생몰연대는 수록해 두지 않았다. 다만 이 편지에서 그가 대흥사 승려로 동백기름을 공납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아무튼 그의 편지는 대흥사에 부과된 동백기름의 양이 너무 과다하여 그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사자발)약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원기둥 7.5Φ×29cm
돈타레 5.6Φ×26cm
밀대 4.7Φ×24.5cm
돈타레 5.6Φ×27cm
6.5Φ×30cm
5.9Φ×18cm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연화머리초 단청은 '옴마니반메훔'의 조형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⑩ 한국산사 단청문양에 담긴 본질

한국산사 법당은 연화장의 법계우주

한국산사의 법당 내부는 온통 연꽃 장엄의 세계다. 법당 안팎을 연꽃으로 장엄한 것은 대웅전을 비롯한 법당이 연화장세계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 연화장세계는 연꽃과 보배나무, 온갖 보석으로 장엄되어 있고, 오색구름이 자욱하며, 아름다운 음악과 향기로움으로 가득한 세계다. 천정 빗반자나 공포(栱包)의 순각판에 구름이 자욱하고, 천정 가장자리에 주악비천벽화를 그려 둔 뜻도 연화장세계의 장엄으로 보아야 한다. 연화장세계의 중심엔 비로자나불이 계신다. 비로자나불은 형상도 음성도 없다. 빛이고, 진리 그 자체다. 석가모니불은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 법신불과 일체가 되었다. 한국산사 법당의 모든 장엄의 궁극은 진리와 자비로 가득 찬 법계(法界)로 통한다.

법당 건축의 핵심 건축부재는 대들보다. 중요한 역학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가장 웅장한 재목의 특성을 갖는다. 크기만큼 단청장엄의 바탕으로 제공되는 화면도 크다. 중요하고도 시선을 끄는 그 화면에 어떤 교의를 담을 것인지 장인 예술가들의 고민은 애초에 상당하였을 것이다. 한국산사 법당 장엄에서 대들보 장엄에 정립한 패턴은 거의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 대들보 길이는 통상 10m 안팎이다. 어느 법당이든 대들보 장엄의 패턴은 양 끝에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을 입히고, 가운데 계풍엔 용틀임하는 용을 그려 넣는 것이 공식처럼 이뤄진다. 즉 대들보 단청장엄은 연화머리초-용-연화머리초의 패턴을 가진다.

단청의 핵심을 이루는 문양 역시 연화머리초다. 연화머리초의 구성은 대체로 여섯 가지의 소재를 갖는다. ①연꽃 외부를 둘러 싼 녹화(=골팽이), 곧 연잎, ②연꽃, ③석류동, ④보주, ⑤묶음, ⑥색파장인 휘(暉) 등이 중심요소를 이룬다. 연화머리초의 연꽃은 자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이상적인 도안으로 승화시킨 연꽃도 있다. 연꽃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였든, 조형원리와 조형에 담은 본질은 같다. 초록의 연잎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연꽃이 피어있다. 보통 잎은 생명력을 가져 끝자락이 돌돌 말려 있는 모양을 가진다. 연꽃 속에는 석류처럼 생긴 소위 '석류동'이 있다.

단청에서 말하는 석류동은 식물학으로 접근하면 생명의 원천인 씨방이다. 사실 국보 185호 『법화경』 사경첩, 보물 1138호 〈법화경〉 사경첩 등의 겉표지를 살펴보면 석류동을 정확히 암술, 수술이 그려진 씨방으로 그리고 있다. 씨방에서 씨앗이 쏟아져 나온다. 씨방조형에 담긴 본질은 생명의 매트릭스(matrix)이며, 결국 자비심이다. 연화 속의 씨방에는 여래장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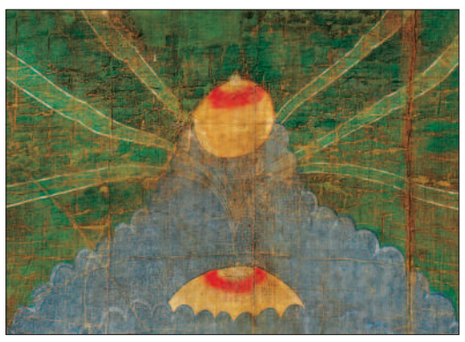
왼쪽에서부터 남장사 극락보전(두 장), 직지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대웅전, 대구 용연사 극락전 대들보에 베푼 연화머리초 단청문양.

연화좌-씨방-보주-묶음-빛의 발산

연꽃 속의 병 모양이 석류동이든, 씨방이든, 혹은 정병이든 조형원리는 연꽃 대좌에 봉안한 부처와 같다. 즉 불상 조형에서, 혹은 불화에서 연화좌 위에 모신 여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조형언어를 통해 연화좌에 정좌한 여래를 연꽃 속의 씨방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그 씨방에서 씨앗이 터져 나오듯 둥근 보주가 나온다. 단청에서는 '항아리'라고 부르지만 불교 최상의 꽃인 연꽃에서 항아리가 나온다는 표현은 터무니없다. 그런 용어들은 단청장엄의 내면에 깃든 숭고함의 정신을 심대하게 왜곡한다. 더구나 이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은 불교교의를 압축한 대단히 거룩한 상징조형인 까닭에 엄밀하고도 정확한 명칭이 적용되어야 한다. 항아리가 아니라 보주다.

왜 보주인가? 불상이나 불화를 떠올려 보면 보주일 수밖에 없는 실증의 힘을 가진다.

부처께서 연화좌에 정좌해 계시고, 부처의 머리 위로 보주가 솟아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소위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서 '정상계주'라 부르는 보주가 불쑥 솟는다. 특히 불화에서는 그 보주에서 광명 줄기가 나온다. 빛줄기는 처음에는 타래처럼 강력한 회전력으로 감겨 오르다가 구름 형상의 묶음이 있는 임계점에서 폭발하여 온 우주로 무한히 발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연화머리초는 바로 이 장면을 압축한 것이다. 불화에서 여래를 표현하는 법식은 한결같다. 연화좌-여래-보주-묶음-광명의 푹발로 이어진다. 그것은 연화좌-씨방-보주-묶음-빛파장 휘 문양으로 전개되는 연화머리초의 구조와 완벽히 일치한다. 연화머리초에서도 씨방에서 보주가 나온 후 머리초를 복주머니 모양으로 오목하게 좁히는 묶음의 형상이 나온다. 머리초의 이 묶음은 공간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특별한 봉안의 의미이다. 동시에 보주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 병목을 좁혀 흐름을 증폭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묶음을 지나면 바로 보주에서 나온 빛이 폭발해서 확산한다. 묶음이 일종의 특이점이다. 연화머리초에선 단청의 색 바림으로 빛의 파장을 표현한다.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색 파장을 단청에서는 '휘(暉)'라고 부른다. '휘'는 '빛', '광채'를 뜻한다.



내소사 괘불에서 석가모니불의 정수리 위로 솟구치는 보주와 빛의 발산.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은 연꽃과 보주, 빛의 유기체로 '연꽃 속의 보주'를 표현 곧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상징이다

연꽃과 보주, 빛이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의 핵심을 이룬다.

연화 속 보주에서 나와 우주로 무한히 확산하는 그 빛은 무엇일까? 바로 무명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다. 여래의 정상계주에서 나와 우주로 확산한 진리의 빛과 같다. 만유의 우주에 부처께서 광명으로 놓은 진리 법이 충만하므로 '법계우주'라고 부른다.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은 법계우주를 담고 있는 고도로 심오한 상징문양이다. 그런데 '휘'라고 부르는 색 파장은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표현인 것만은 아니다. 경전을 압축한 진리의 말, '진언(眞言)'의 청각적 울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 진언의 울림일 수 있는가?

연화머리초 본질은 연꽃 속의 보주

연화머리초 단청문양이 담고 있는 본질은 '연꽃 속의 보주'다. 범어로 말하면 '옴마니반메훔'이다. '마니'는 '보주'이고, '반메'는 '연꽃'을 뜻한다. '옴'과 '훔'은 우주에 가득한 성스러운 소리다. 그래서 '옴마니반메훔'을 풀이하면 '연꽃 속의 보주'의 뜻을 가진다. 한국산사 장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청문양인 연화머리초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형상도 '연꽃 속의 보주'이다. 결국 '옴마니반메훔'을 시각화 한 단청문양이 연화머리초다. 이것은 경이롭고도 놀라운 사실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부처님 오신 날에 드러내고 싶었다.

한국산사의 단청문양은 온통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의 장엄세계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불전건물도, 불상도 불화도, 석탑, 석등, 승탑, 사리장엄, 단청장엄 등등 그 모든 장엄의 근본에는 '연꽃 속의 보주', 곧 '옴마니반메훔'의 구현에 있다. 심지어는 사찰가람마저도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의 물 위에 떠있는 연꽃 한 송이로 경영했다. 법당들은 연꽃 속 씨방에 있는 진리의 종자(種子)들이다. 통도사 대웅전이나 범어사 대웅전을 살펴보면 기단부에 연꽃을 새겼다. 지붕의 용머리엔 도자기 연봉을 얹거나 금속 보주탑을 올려 두었다. 연꽃과 보주로 장엄한 법당, '연꽃 속의 보주'다. 석등이나 석탑, 승탑 등에서 기단부엔 연꽃, 상륜부엔 보주를 장엄한 것도 '연꽃 속의 보주'가 지닌 진리의 빛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연꽃과 보주인가? 두 조형은 왜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것일까? 연꽃은 생명 탄생의 근원이다. 불교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고대 인도에서는 연꽃을 생명 생성의 태반으로 보았다. 연꽃은 곧 생명과 자비를 상징한다. 반면에 보주는 빛의 근원이다. 보주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탐진치(貪瞋癡) 삼독에 젖은, 마음 속 무명(無明)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다. 즉 '연꽃 속의 보주'에서 연꽃은 자비, 보주는 진리로서 자비와 진리의 일체(一體)를 압축한 것이다.

자비와 진리는 불교교의의 근본이고 전부이다. 연화머리초는 연꽃 속의 보주, 곧 '옴마니반메훔'의 진언 성음(聖音)을 조형으로 구현한 성스러운 문양이다. 연화머리초에 육자진언의 염송이 깃들어 있다. 색파장인 '휘'가 소리의 파장이기도 한 이유다.

한국산사 단청은 교의를 담은 경전

법당은 그 육자진언의 단청문양으로 가득하다. '연꽃 속의 보주'를 조형화 한 연화머리초는 대들보에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온갖 건축부재 단청장엄에 두루 나타난다. 특히 창호 위 창방과 평방, 도리, 장여 등 비교적 큰 화면을 제공하는 부재에는 대들보에 시문한 머리초와 아주 유사한 문양을 장엄한다. 그런데 기둥머리인 주두(柱頭) 라든지, 소로, 교두형 살미와 첨차, 천정반자의 종다라니 등 화면이 협소한 곳에는 어떤 문양을 시문할까? 연화머리초의 부분에서 모티프를 취한다. 대표적인 문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주두, 소로 등: 서로 겹친 연잎을 표현한 겹녹화(=골팽이)에서 보주가 나오는 문양. ②첨차: 물결 모양의 색 파장인 휘의 골에서 보주가 나오는 문양. ③천정 종다라니: 연꽃을 녹색 연잎이 둘러싸고, 잎 사이로 보주가 나와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문양으로 베푼다. 공간의 화면 크기에 따라 연화머리초를 더 압축한 문양으로 장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사 법당의 거의 모든 문양이 '연꽃 속의 보주'다. 더구나 천정의 우물반자에는 보다 직접적인 조형의 뜻을 드러낸다. 육엽연화문을 통해 여섯 꽃잎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범자 종자자로 직접 심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육엽연화문 중심 소재는 연꽃과 보주, 육자진언이다. 한국산사 법당의 천정 한 칸 한 칸이 '연꽃 속의 보주'이다. 문양도 교의를 담은 경전이다.

〈사진작가〉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 부동산 실무자및 부동산 재테크인을 위한 -
제13기 음양풍수(陰陽風水) 강의안내 [6월5일 개강]

음양풍수는 옛날의 고승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집이나 가게터를 보고 풍수를 단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말그대로 "음양의 이치"로 쉽게 바로 길흉을 잡아내는 방법으로 아주 쉽고 간단한 풍수이론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고서 그 집을 길흉을 잡아내거나 사업하는 사람의 점포나 사무실을 보고서 사업의 승패를 바로 잡아내는 방법은 음양풍수 만큼 쉽고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 본강의 핵심은 ▣
1. 장사가 되는 집은 어떤 집인가?
2. 장사가 안되는 집을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수 있는가?
3. 사업하는데 남자가 잘되는 집과 여자가 잘되는 집을 어떻게 구별 하는가?
4. 장남, 차남, 막내중 누가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지?
5. 처가 건강할지, 남편이 건강할지, 자식이 건강할지?
6. 어떻게 해야 장가가고 시집을 빨리갈 수 있는지?
7. 아파트나 주택의 몇호에 살아야 할지?
8. 대표이사, 직원, 영업부, 관리부 등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등

■ 강의대상 : 부동산 중개인, 부동산 경매업자, 부동산 인테리어업자, 철학원 운영자, 양택풍수업자, 프랜차이즈 실무자, 양택풍수에 관심이 있는자, 기업체 운영자.
※ 생활풍수의 모든 것을 음양의 이치로 아주 쉽게 강의를 합니다. 아마 "음양"의 논리에 탄성을 자아내실 것입니다.
♣ 더욱 업그레이드된 음양풍수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일 정 :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개강 오후 2시 ~ 4시 [4주 강의]
※ 무료공개강의 ※ ▶ 6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 2시

■ 강 사 : 맹파명리 역자, 맹파명리학회 회장, 국립 공주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 대진대학교 최고위 과정 문화예술위과정 음양풍수 강사
■ 위 치 : 1호선 종로3가역 2번출구 바로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중국집 대륙계단 영흥빌딩 502호
■ 연 락 처 : 010-7143-0543 [학산 박형규]
■ 카페안내 : 다음검색 "맹파명리(盲派命理)" http://cafe.daum.net/mangpa114

부자 되고 싶다면 부자 되려 하지 말라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⑩ 가치 경영 · 가치 사고



그림 · 박구원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연예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다보니 일부는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일부는 우울증에 빠진다. 연예인 중에서 사람을 웃겨야 하는 코미디언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한다. 로빈 윌리암스라는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얼마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남을 웃기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에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다. 로빈 윌리암스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기에 그와 한 무대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으리라. 어떤 코미디 배우가 로빈 윌리암스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그를 너무 의식하다보니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한다. 마음을 고쳐 먹고 자신 만의 코미디를 선 보였더니 박수가 쏟아졌단다. 유명한 골프 선수 배상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충고가 된다. 그는 이길려고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자기 만의 경기를 하면 경기가 잘 풀렸다고 했다. 도박의 대가도 비슷한 소리를 한다. 돈을 따려고 하면 오히려 잃기에 마치 돈 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도박을 하면 돈을 딴다고 한다.

불교는 모든 인위적인 조작을 배격한다.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행복도 목표로 삼으면 행복에 대해 공학적으로 접근한다. 건강이 더 좋으면 행복하겠지? 그럼 운동을 해야 돼. 날씨가 더 좋다면 행복도가 더 높다고 하니 이번 겨울에는 하와이에 가야겠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데 이번에 기어이 부장 승진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행복에 접근하면 행복은 오히려 달아난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추구하면 얻을 수 없다. 행복이란 지혜, 자유, 평온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거라고 정의하려는 순간 행복은 사라져 버린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을 추구하되 마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듯이 추구하라는 말이다. 영어로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는데 '함이 없는 함(doing without doing)'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마치 하지 않는듯이 하면 가장 잘 할 수 있다.

랜든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 100명을 조사하고 나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좇으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돈을 벌겠다고 염두에 두면 오히려 실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의미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결혼도 불교식으로 하고 불교 명상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만큼 독실한 불교신도이다. 그가 세상을 떴을 때 전 세계가 애도했다. 호주의 어떤 여성이 립스틱으로 애플 매장 쇼윈도우에 '고마워 스티브'라고 쓴 사진이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고객에게 공짜로 물건을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다니 그는 참으로 굉장한 사업가였다. 그가 세상을 떴을 때 ABC 방송은 그가 선불교에 기반한 경영을 했기에 애플이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애플 아이폰은 단순 간결한 디자인의 정수다. 그는 군더더기는 모두 없애고 핵심만 남겨두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 사람들은 최소 표현주의(minimalism)에 입각한 단순 간결한 디자인을 불교적이라고 보아 젠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쓴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아이폰의 홈버튼 마저 없애려고 했다. 엔지니어가 홈버튼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하자 할 수 없이 남겨 두었다고 한다.

그는 애플 아이폰을 만들 때 뒷면을 열고 보니 배선이 마음에 안들어서 좋게 정리하라고 엔지니어에게 지시를 했다. 엔지니어가 '고객은 배선을 볼 수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내 눈에는 보이거든'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애플 제품의 완성도가 높고 우수해서 매니아가 생겼고 그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만든 적이 없고 가족이나 친구가 사용할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큰 돈을 벌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랜들 존스가 조사한 바대로 고객을 위해 가장 좋은 제품을 최저 가격에 공급하는 것만 신경 쓰면 돈은 저절로 벌린다. 부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식당 주인이 고우 스님에게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고우 스님이 '손님을 돈 벌어주는 봉으로 알지 말고 은인으로 알아야 한다'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대로 실천했는가 보다. 식당 주인은 많은 돈을 벌어 빌딩도 구입했다고 한다. 내가 자주 다니던 어떤 식당은 워낙 인기가 좋아 12시에 가면 자리가 없었다. 언젠가 주인이 바뀌었는데 메뉴, 종업원, 주방장 모두 그대로였다. 그 식당은 입구에 주방이 있었는데 유리로 안을 들여다보고 손님이 입장할 수 있게 해 놓았기에 주방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바뀐 주인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고 배웅했지만 미소는 자연스럽지 않았고 표정은 음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 나중에는 문을 닫고 다른 식당이 들어섰다. 나는 그 식당의 새 주인이 고객을 은인으로 알지 않고 봉으로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너무 '돈, 돈' 하면 돈을 벌 수 없다. 고객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해야 큰 돈을 번다.

목표로 행복을 잡으면 불행은 필수
고객 위한 장사 할 때 돈 벌어
'돈·돈' 하면 의사결정 흐트러져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불자는 돈을 벌 때도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돈을 벌려고 하면 못된 마음을 먹기 쉽고 소비자를 속이게 되며 길게 보지 못하고 단기적 안목에 빠져 일을 그르치기 쉽다. 오직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높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라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마음을 내지 않는게 좋다.

골드만 삭스 회장인 짐 오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나보았지만, 오로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시작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한다. 불교 신도가 아닌 속세의 사람도 돈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었는데 불자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돈은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에 제공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을 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돈, 돈' 하다보면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망치게 된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자기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면 금방 알아차린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런 촉각이 발달했다.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이 얼마나 영악한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고객을 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한 두번은 속일 수 있으나 계속 속이지는 못한다. '돈, 돈'하는 사업가가 고객을 위할리가 없다. 동네에 두 의사가 있다고 하자. A라는 의사는 그저 환자를 봉으로 보고 '돈, 돈'하며 진료를 한다. B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다. 환자는 B의사에게 더 많이 갈 것이다.

어떤 사업가는 자기가 성공했다고 남이 부러워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했다고 약간 억울하다는 듯 말을 했다.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처님은 〈장아함경〉에서 "만일 추위와 더위 가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힘써 닦으면 어느 사업이고 안 될 것 없어'라고 설한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기에 부지런해야 한다면 죽기 살기 정도로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돈을 벌 때나 돈을 쓸 때나 모두 중도적이어야 한다. 중도는 어떤 의미일까?

첫째 경전에 가장 쉽게 쓰여진 중도의 사례는 거문고의 줄에 대한 비유이다. 부처님은 거문고가 지나치게 팽팽하면 끊어지고 지나치게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적당하게 부지런한 것, 평균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중도적 자세다. 돈을 벌 때 적당하게 부지런하거나 평균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중도적 삶이 될 수 있다.

둘째 중도는 양극단을 떠난 것이므로 게으르다는 극단, 죽고 살기로 하는 극단을 떠나야 한다. 양극단이 동시에 존재하거나 공존할 때 즉 양극단이 조화를 이룰 때도 중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때로는 게으르다고 말할 정도로 일하다가 때로는 죽기 살기로 일하는 양극단이 서로 교대로 나타난다면 극단이 잘 조화를 이루는 중도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절호의 기회가 온다.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에 목을 매고 죽기 살기로 하게 되는데 극단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계속하다간 견디지 못할 것이므로 적절한 시점에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 그때의 휴식은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충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생 시절 창업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다. 아버지가 힘들게 입학한 대학이니 졸업하고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끝내 학교를 중퇴했다. 빌 게이츠는 만약 그때 중퇴하지 않고 졸업했더라면 지금 유명 기업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셋째 중도는 때로는 약간의 과부하일 수도 있다. 만약 중도가 평균이나 중간이라고 평균이나 중간을 고집하면 그것 또한 극단이다.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약간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한다. 너무 쉬우면 피곤하기만 하고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며 너무 힘들면 다치고 노화가 빨리 온다. 마찬가지로 일할 때도 약간 부지런하게 하면 그게 중도일 수 있다. 너무 심하게 하면 몸이 상하고 지쳐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퇴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평균적으로 하면 그저 그런 사업가가 되고 만다. 부처님은 열심히 돈을 벌라고 했는데 평균 정도의 강도로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다.

넷째 중도는 때로 약간의 과부족일 수도 있다. 우리는 소비할 때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면 절제이고 미덕이다. 대통령이나 CEO는 너무 바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므로 너무 바쁘면 안된다고 한다. 약간 게으른듯이 여유를 가져야 신제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평균보다 약간 과부족한 수준에서 일하는 것도 중도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원융불교대학 7기 학인 수시모집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 모집

· 교육과정	초. 중. 고급반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 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 학 장	종무원장 도안스님
· 강 주	상진스님
· 강 사	법진스님
· 개강일시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 모집학과	불교의식(범패)학과, 기초 불교 교리
· 강의시간	초. 중. 고급반 (추후공지) ※ 상기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반명함사진 1매, 입학원서(불교소정양식) 1부 (태고종승려는 승적증명서 1통, 수계증 사본)
· 접수시간	수시모집
· 접 수 처	충북교구종무원(043-265-7100) / 교학처장 도성스님(010-7738-0966)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보살, 재가불자, 일반인 염불의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구름 벗어난 달처럼 부처님께 귀의하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⑲ 앙굴리마라경2

앙굴리마라는 다가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부처님보다는 울며 다가오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취하는 것이 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처님이 앞으로 나오셨다.

"앙굴리마라여, 보아라, 나는 이미 멈추어 있느니라. 머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네다. 하늘은 누굴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대는 참으로 가엾은 사람이다. 바로 이 나무 아래가 그대가 태어난 곳이며 어머니가 너를 안고 기른 곳이다. 어찌 그곳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가? 나쁜 스승의 가르침 때문에 끔찍한 살생을 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해치려는 것을 보니 너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어서 빨리 칼을 버려라. 그리고 여래에게 귀의하라. 앙굴리마라여, 떨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래는 크게 인자하나니 바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한다. 너는 여래께 귀의하여 지난 날을 참회하고 정진하라."

앙굴리마라가 두려움에 멍하니 있자 어머니가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피 묻은 칼과 손가락꾸러미를 집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찬성하고 부처님도 그의 출가를 허락하였다. 그 때 제석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하늘 옷을 공양하며 가사를 만들라 하자 앙굴리마라는 코웃음을 치며,

"제석이여, 내가 이제 막 출가를 결심했는데 이런 값진 옷을 보시 받는다면 내 번뇌와 내 안의 마군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를 뭐로 보고 이런 경계에 들게 하는가. 나는 마하가섭처럼 무소유의 두타행을 하려고 하니 나에게 고급 진 옷은 필요하지 않다. 너나 실컷 입어라" 하자 제석이 기가 막혀 이해를 시키려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출가를 했지만 마음에 악심이 남아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청정하게 수행하려 하니 나를 훼방하지 말라며 모든 이들에게 겨우 그 정도의 경지밖에 터득하지 못했냐고 힐난하기 일쑤였다. 잠자코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삼귀의계와 5계를 주었다. 그리고 문수사리법왕자와 함께 그를 북쪽의 항하사세계를 지난 곳에 있는 무량혜자재왕여래를 찾아가 여래의 세계, 여래의 몸과 중생을 교화하는 법을 배워오라며 보낸다. 이렇게 앙굴리마라는 이제 비구 가구로서 새로 태어나 바라문의 법을 잊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어느 날, 탁발을 나간 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기겁을 했다. 악마가 부처님 품에 숨어들었다고 난리가 났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얻어맞고 기원정사로 돌아오는 길에 만삭의 한 여인이 그를 보고 놀라 아이를 낳으려다가 그만 숨이 막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는 돌아와 부처님을 뵙고 그 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출가하여 스님이 된 뒤로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노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라, 어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아이를 순산하라고 해라."

그는 999명을 죽인 자신은 절대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부처님은 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부처님께 오계를 받고 새로 태어난 제자 가구다. 비구 가구는 단 한 번도 살생을 한 적이 없다. 나는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그곳으로 가고 있다." 소리를 치고 가라고 했다. 산모의 집에 다다라 이렇게 말하자 산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파세다닉왕이 연쇄살인마였던 앙굴리마라를 체포하기 위하여 기원정사에 왔지만 개과천선한 그를 보고 부처님께 그를 맡기고 떠났다고 한다. 훌륭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경전을 읽고 난 내 귓가에 머무니 절로 청정해지는 것 같다.

"사람이 비록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고치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름을 벗어난 달과 같다."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공부로 시시각각 소원성취 체험을…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⑱ 일본여행의 추억

몇 년 전 겨울 금강경을 공부하는 도반 10여 명과 일본 규슈섬 남쪽 미야지키시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우리 일행이 머무는 곳은 태평양이 보이는 세라톤 호텔. 태평양 바다가 일망무제로 보이는 5층이었다.

1층에서 아침식사 중, 우리 일행을 안내한 사람은 한국말도 제법하는 일본 여성이었다. 말하는 태도는 단정하였고 용모 역시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말하는 태도나 용모를 보는 순간 어느듯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다. 그에 대한 강한 인상은 비교적 과묵한 나로 하여금 서투른 일본말로 "당신 인상이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게 까지 하였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좀체로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지워지지 아니하였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단정한 모습이 자꾸 마음 속에서 되풀이 되어 떠올랐다.

나이가 70세가 넘었을 뿐 아니라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하게 된 나였지만 그를 보는 순간 부처님께 바치는 능력은 다 사라지다니 이 무슨 일인가? 전생의 인연인가?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공자님은 나이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하시지 않았던가? 금강경을 50년 읽은 사람사람이 공자님처럼 모든 욕망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도 업보를 보자마자 이끌리다니…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잠시뿐 내일 아침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식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그를 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이 계속 부풀어 올랐다.

금강경 공부고 무엇이고 마음은 마냥 소년의 마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가 준비해간 음식이 많이 남게되자 함께 간 도반들이 내일 아침은 잠자던 호텔방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호텔방에서 식사한다면 당연히 내일 그 일본여인을 만날 희망도 사라지게 된 것인데,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 지고 우울해졌다.

이런 부끄러운 생각, 우울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다시 금강경 공부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상이 그 곱다는 얼굴이 과연 누구의 얼굴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괴롭다는 생각이 과연 누구의 마음인가라고 스스로 진지하게 반문하게끔 만들었다.

선지식께서는 그 곱다는 그의 얼굴은 실은 그의 얼굴이 아니요 내 마음이며, 그로부터 나온다는 괴로운 마음 역시 다 내마음이라 하시지 않았던가?

금강경을 독송 중 이런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이 들면서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시는 불 수 없다라는 생각 역시 마음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돌아오는 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대형마트보다 훨씬 넓어 보이는 미야지키 쇼핑몰을 두루두루 휘저으며 우산이 있는 곳이면 다 살펴보는데 어느 큰 우산코너 근처에서 쉐라톤 호텔에서 본 일본 여인과 비슷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띠는 것이었다.

아침에 떠난 쉐라톤 호텔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곳에 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하며 매장밖으로 나가려는데 아까 본 그 여인이 또 만나게 되었다.

그와 나는 동시에 '어!' 하며 반기었다. '아! 인연(因緣)이네요.' 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튀어 나왔다. 인연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에게 글로 써 표시해주니 그는 즉시에 준비된 전자사전으로 그 한자를 치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침 일요일이고 한가한 시간이어서 시장을 보러 왔다는 것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쫓기어 긴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몇 번 생각하여도 이 드라마틱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나의 금강경 공부의 힘, 내 잠재의식이 만든 명령으로 시시각각 소원을 이루게 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백척간두' 에 서면 '이 뭣고' 로 나아가자

'엑스터시(ecstasy)' 는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속박(束縛)하는 깊은 바다서 허우적 거리는 고통속으로 부터 빠져 나오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말하면 자신이 현재 처한 수동적이고 절망적인 상태서 벗어나 홀로서기 위한 도전이다.

일본에 하늘로 날라간 '고이' 라는 물고기의 신화(神話)가 있다. 잉어과인 이 물고기가 불가능한 도전(挑戰)을 시도하기로 결심한다. 강물을 역(逆)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는 목숨을 건 결단이다. '고이' 는 매 순간을 집중해 드센 물결을 헤치며 사투(死鬪)를 계속한다. 우리 중생은 지치면 다른 물고기들처럼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한없이 흘러 가고도 싶어한다. '고이' 는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고 싶었다. '고이' 는 뾰쪽한 돌에 부딪혀 피가나고 다른 포식 어류들의 공격에 노출되지만, 이 강물의 원천(源泉)을 향해 외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지고 '고이' 의 체력이 고갈됐을 때, '고이' 를 철저하게 좌절시킬 만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포수가 앞을 가로 막는다. 여기서 '고이' 는 불가능한 창의력(創意力)을 이끌어 낸다.

"내가 비록 물고기이지만, 물고기 이기를 포기하겠다. 마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지느러미와 꼬리를 날개로 만들어 단숨에 폭포위로 날아가면 되지 않을까"

'고이' 의 자기 믿음이 그 순간에 그를 한 마리의 용(龍)으로 변용시켜 버린다. 마침내 '고이' 의 신념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고이' 는 그 강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발밑에 아련하게 사라지는 폭포수를 눈물로 바라보며 하늘을 훨훨나르는 자신을 발견한다.

"거짓 나를 진아(眞我)로 착각함으로서 오는 죽음의 공포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으로 '이 뭣고' 하며 나아가면 그 자리가 곧 바로 생사 없는 해탈열반의 본고향인 것이다"

우리들의 신념인 '이 뭣고' 는 사람의 정신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이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비옥한 정원이며 그 속에서 인생의 모든 부(富)가 생산된다. '이 뭣고' 는 소위 기적이라는 것, 즉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의 근원이며, 평범한 사고의 에너지를 영적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런 행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勇氣)와 인내(忍耐)가 수반 되어야 하지만, 그 유일한 신무기(新武器)가 바로 '이 뭣고' 이다.

당신은 시류(時流)에 떠내려가는 맥없는 피라미로 살것인가?

아니면 신념 '이 뭣고' 로 뭉쳐진 성공신화(成功神話)의 활용(活龍)으로 우리의 생사없는 본고향인 자성불 자리로 환지본처할 것인가? 강물이 높은 산에서 시작해 마을과 들판과 큰강을 지나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 강은 사막에 흘러 들어가면 자신의 존재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 공포에 휩쌓이는데, 그때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이 너를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들려온다. 또한 "고이와 같이 네가 강물이라는 아상(我相)서 벗어나, 그 바람에 네 자신을 맡기면 너를 증발시켜 가벼운 구름으로 만들고, 수 백리 산을 넘고 날아가 너를 광활한 바다에 안겨줄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도 거짓 나를 진아(眞我)로 착각함으로서 오는 죽음의 공포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굳은 믿음으로 '이 뭣고' 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곧 바로 생사(生死)가 없는 해탈열반의 본고향인 것이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시방세계현전신(十方世界現全身)이라,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 올라 갔으면 '이 뭣고' 로 한걸음 더 나아가라, 그러면 비로서 너의 생사없는 본고향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생사(生死)도 바다의 물결이 천파만파 온갖 모습으로 물결친다 해도 바닷물의 본질은 그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BS)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6월 30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사찰에 일이 아니라 수행하러 왔습니다”

日스님, 업무 폭탄에 사찰 고소
“수행에 집중하고 싶다” 호소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스님들의 과로 문제로 고소를 당한 고야산 사찰의 전경.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늘 과로에 시달리는 고야산 스님들.

일본의 명소로 알려진 한 사찰이 소속 스님에게 고소를 당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 스님은 사찰에 있으며 과도한 업무로 우울증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더 텔레그래프’는 5월 17일 “과로에 우울증까지 걸린 스님이 사찰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한 스님과 고소를 당한 사찰은 익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야산 지역의 가장 인기가 많은 성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한 스님은 “수행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도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에 계속 치여 상처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님의 변호를 맡은 노리타게 시라쿠라는 AFP통신에 “원고는 2008년부터 사찰서 일을 시작했다. 2015년도 5월과 10월은 순례와 단풍시즌을 명목으로 한달 내내 쉬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경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일본사찰들은 관례적으로 오후6시 전에 업무가 종료되는데 스님은 매일 밤 9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의 일부라고 강요당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라는 큰 스님들의 말에 원고는 참고 버텨왔지만 결국 이는 스님의 몸과 마음만 망가트렸다”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2017년 5월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촉해서 지방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10월에 근로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사찰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에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스님측은 위자료와 밀린 임금을 합한 860만엔(약 8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관광객 많은 익명 유명 사찰
과로에 스님은 우울증까지…
하루 17시간 방문객 접대하고
쉼 없이 64일 연속 근무했다

또한 스님은 이번 고소를 통해 많은 스님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이 과도한 업무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야산 개산 1200주년 기념을 위해, 고야산에서 수행하는 스님은 64일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떤 날에는 17시간동안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쉼 없이 내리 일하기도 했다. 2017년에 교토시 정토진종 본산인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는 사찰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서 과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문제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간 접수된 과로사건만 191건으로 일본 근로자의 7%이상이 주당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사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아베 신조는 과도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혁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버려진 동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사찰서 유기동물 보호해 화제

일본서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5월 20일 일본 ‘후쿠이 신문’은 유기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에치젠시(越前市)의 사찰 고탄죠지(御誕生寺)를 소개했다.

고탄죠지는 일본 조동종의 중흥조 케이잔(瑩山)선사가 탄생한 곳에 세워진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찰은 ‘고양이 절’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주지인 이타바시 코슈(板橋興宗, 91)스님이 4마리의 유기고양이를 절에서 키우기로 한 것이 계기였다. 고양이는 점점 늘어 현재 사찰은 23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



고양이들과 놀고있는 주지스님.
사진출처=후쿠이 신문



절의 새식구가 된 골든리트리버 ‘앤디’.
사진출처=후쿠이 신문

고탄죠지는 “모든 고양이의 목에 목걸이를 채우고,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책임을 가지고 고양이들을 보호하려한다”고 밝혔다. 사찰은 또한 유기묘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활동도 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은 “고탄죠지에서 입양한 고양이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기가 좋다”며 웃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주지 스님의 에세이나 블로그, SNS등을 통해 점차 소문이 나면서 현재 사찰에는 연간 약 3만 명의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다. 경내에는 유기묘들을 위한 모금함이 있어 이 돈으로 사료와 치료비등을 충당하고 있다.

주지인 이타바시 스님의 ‘고양이 법문’도 인기다. 스님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수행에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법문을 한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내용이다.

“고양이는 스님들처럼 좌선을 하거나 예불을 올리지도 않고, 바삐 움직이는 수좌들을 뒹굴거리며 볼 뿐입니다. 뒹굴거리면서 사람처럼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요.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마치 풍경이 바람이 불면 울리듯이 생각과 언어의 개입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삶입니다.”

고양이만 있던 사찰에 최근에는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도 오게 됐다. ‘앤디’라는 이름의 개는 맹인안내견 시험에서 탈락한 개였다. 이나와시로 쇼슌(猪苗代昭順, 43)부주지 스님은 “안내견 훈련사였던 도반이 훈련에 탈락한 개들에 대해 얘기해줬다. 보통 갈 곳이 없어 유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개도 함께 키우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나와시로 스님은 “본래 고탄죠지는 선원이 있는 엄격한 수행도량이다. 하지만 절 경내 뜰에 개와 고양이들이 노닐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이 격차야말로 이곳의 매력 아니겠는가”라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지방정부, 인도 유학파 스님 탄압

“중국에서 불교 가르치기에 적합치 않다” 이유

해당 스님들 강의 전면 금지
일부 스님들은 추방당하기도

중국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인도서 유학한 스님들의 강의를 전면금지하고 일부를 추방했다.

중국 사천성 지방정부가 리탕(Litang) 티베트 자치지구에서 일부 스님들의 강의를 금지하고, 그중 일부는 사원에서 추방했다고 5월 15일 ‘글로벌 타임스’ ‘스푸트니크 인디아’ ‘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외신이 전했다. 이 스님들은 모두 남인도의 티베트 망명사원에서 유학한 스님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리탕지구의 소수민족 · 종교 민정사무국은 매년 시행하는 공식 애국교육에서 게쉐하람빠(Geshe Lharampa)들이 대중에게 법문하는 것 금지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사무국은 이들이 ‘분리주의적인 성향’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쉐하람빠란 티베트 불교의 학위인 ‘게쉐’중에서도 최고위 학위로 불교학 박사 겸 삼장법사에 해당된다. 사무국은 해당명단의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모두 인도유학 후 돌아온 게쉐들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명령이 내려온 후 일부 게쉐들은 사원에서 추방됐다.

전 종교문제 위원장인 주웨이칸은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해외에서 부여된 게쉐학위는 중국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중국에서 불교를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철저한 감시감독을 통해 달라이라마와 그의 정권이 티베트의 불교도를 이용해 분리 독립을 이루려는 시도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티베트 망명사회에서는 ‘지극히 종교적인 영역임에도 중국정부가 손을 뻗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인도에서 공부를 마치고 티베트로 돌아간 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당 사안에 대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으며, 이 결정 티베트 자치구 전체에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요사채,산신각,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마음 치유 돕는 '궁금한 콘서트'

도서출판 맑은소리, 매회 주제 정해 음악 선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힐링과 음악을 선물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부산서 열렸다.

월간 ·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대표 김윤희 · 이하 맑은소리)는 5월 19일 부산 남구 가람아트홀에서 '궁금한 콘서트'를 열고 관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맑은소리가 연중 기획 첫 번째 무대로 연 '궁금한 콘서트'는 치유의 의미를 담은 '치유놀이 콘서트'로 새롭게 기획됐다. 주제를 콘서트장에서 출연자가 직접 음악에 담아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형태로,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치유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부드러운 감성으로 전달했다.

김윤희 대표는 "시대는 급속히 바뀌어 쉽고 흥미롭고 화려한 무엇인가를 더 빨리 좇아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불교 역시 접점 역할을 담당할 방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콘서트는 일반인들에게는 양질의 문화를 전달해 앞으로 차별화된 불교를 전하는 전문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제는 '가족'으로 출연자인 가수 김창기와 뮤지션 비뮤티(흥범석)가

5월 19일 가람아트홀서 첫 선
'가족' 주제로 치유 무대 꾸며
김창기 · 비뮤티 · 선업 스님 출연
"차별화된 불교문화 전달 앞장"

무대에서 가족과 관련된 음악을 선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비뮤티는 팔리어 'vimutti'로 해탈을 의미하며 연세대에서 성악 전공, 맨해튼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크로스오버 뮤지션이다. 2010년 1집 앨범인 'rest'로 데뷔했으며 대표곡으로는 불자들에게 친숙한 '부처님오신날(The Lord Buddha's Birthday)'이 있다.



맑은소리는 불자와 일반인을 포용할 수 있는 치유놀이 콘서트를 기획, 5월 19일 첫 무대를 선보였다. 궁금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행사에는 가수 김창기와 비뮤티, 선업 스님이 출연해 '가족'이란 주제를 음악에 담아 전달했다.

가수 김창기는 대표곡 '혜화동' '거리에서' '널 사랑하겠어' 등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노래를 선보인 가수로 밴드 동물원에서 활동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특히 가수 김창기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가적 소견으로 가족관계에서 생긴 상처를 풀어주고 적절한 상담을 이어가듯 무대를 펼쳐 힐링을 선사했다.

첫 무대를 장식한 비뮤티는 먼저 "한 달 전에 결혼을 했다"며 프랑스 에릭 사티(Erik Satie)의 곡 '쥬뜨부 (Je Te Veux)'에 가사를 붙인 '비 마의 브라이드(Be my bride)'를 불렀다. 이어 디어 파더(Dear Father)를 부르며 자신과 아버지 간의 아픔을 대중에게 담담히 전하기도 했다. 디어 파더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1위인 푸치니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O Mio Babbino Caro)'에 가사를 넣은 곡이다. 원곡은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허락해 달라 부탁하는 것이지만 비뮤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무대를 장식한 가수 김창기는 '널 사랑하겠어' '엄마가 딸에게' 등 가족과 관련된 추억곡 및 대표곡을 부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창기는 비뮤티의 가족 사연을 들으며 "조화로운 가족을 위해서 부모들은 따뜻함과 일관성, 민감성 그리고 관계개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가족관계에서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거나 억압된 상황에 자신을 가두지 말 것"을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5월 첫 공연 특별 초대 손님으로 뫔행복치유센터 센터장 선업 스님이 참석했다. 선업 스님은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기 위한 마음 다스리기를 설명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청중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뛰어난 기획을 선보인 콘서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박추자(부산 정관읍 · 74) 씨는 "출연진도 너무 좋았고 기획도 뛰어났다. 부산에서 이런 불교문화 공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란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를 찾고 힐링 메시지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윤희 대표는 "앞으로 불교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콘셉트로 기획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메시지가 있는 '치유놀이 콘서트'로 발돋움하고자 하며 매회 주제를 갖고 궁금한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수월 스님 같은 푸른 납자 나오길"

의성 고운사, 사중 수행처 '수월암 선원' 준공식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는 5월 12일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수월암 선원 준공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강백 각성 스님을 비롯한 고운사 본 · 말사 스님, 김주수 의성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월암은 구한말 대표적 선지식인 수월 스님이 머문 암자다. 소실되고 암자터만 남아있었지만 2008년 고운사가 복원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수월암 아래쪽 터에 선원 공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앞으로 수월암에서 눈 푸른 스님들이 나오셔서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신을 이끌고 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사는 16일 고운사요양원에서 '제10회 한마음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운사 스님들을 비롯해 구계1리 · 구계2리 주민 100여 명, 요양원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동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천년고찰 운문사 '모든 것' 담다

운문사, 5월 9일 〈운문사지〉 간행 봉정법회

역사 · 자료편 2권으로 구성
인물 · 가람 · 성보 등 '총망라'



천년고찰 운문사의 역사와 고승, 전각, 성보, 사료 등을 망라한 〈운문사지(雲門寺誌) · 사진〉가 대중에게 선보였다.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5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운문사의 1,500여년 역사를 담은 〈운문사지〉 간행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운문사지〉는 역사편과 자료편 2권으로 나눠 발간됐다. 총 860쪽 분량으로 운문사지간행위원회가 엮어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4년여 걸쳐 완성됐다.

역사편에는 △사찰의 위치 △창건과 중창 역사 △운문사의 인물 △가람 규모 등이 상세히 정리됐다. 자료편에는 운문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사찰 신축 · 개축기, 성보들의 화기 · 명문들의 원문들이 수록됐다.

특히 새로 발간된 〈운문사지〉는 현대사회에 맞게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1980년 발간된 〈운문사지〉는 목판본과 필사본의 한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운문사지〉는 기존 한문자료를 현대적으로 번역하고 근현대 비구니 승가교육기관으로서의 역사와 자료까지 묶어냈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록의 불사'인 〈운문사지〉 발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격려사에서 "역사는 만드는 일과 기록물이 있다. 〈운문사지〉는 역사의 기록물로서 운문사의 역사가 물 흐르듯 후대에 이어지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발간에 많은 역할을 한 주지 진광 스님과 사중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운문사지〉 발간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일진 스님은 "1500년의 유구한 역사의 운문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적 자료를 집대성한 〈운문사지〉를 발간하게 됐다.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세세생생 물러남이 없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봉정사에서 "〈운문사지〉의 발간은 그 어떤 불사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잊혀가는 승가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기록의 불사로,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후대의 눈 밝은 이가 보완하고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운문사지 편집국장 동우 스님을 비롯해 승가대학 학인스님, 이종수 성보문화재 연구실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래 인재 젊은이들 무한 가능성 펼치길"

제13회 연등장학금 전달

연등장학재단 제13회 장학금 전달식이 5월 20일 경북 군위군 팔공산 제2석굴암 경내 비로전에서 봉행했다.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생 · 대학생 20명을 선정해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557명이며, 장학금 총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제2석굴암 주지)은 "마음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가장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각오의 그림을 그려 미래의 인재로서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쁜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지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르리라. 해야 할 일이면 기필코 하는 것이 좋으리라 세월가도 뉘우침이 없으리로다.

– 법구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포교원 안내

포교원 창업할 분+양도양수
부전+공양주 일할분,쓸분
(서울,경기지역만 전문)
요양원 입소할 분

010-5381-1419

의통성취 회향

(50분 스님 무료보시)

- 추운곳 기도 수행스님
- 체질적으로 추위 타는 스님

010-3044-2559
※난치성 질환 상담해 드립니다
화정 합장
※면역력 상승을 위한 효소를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사 찰 화 재 보 험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10-7344-1881
010-4510-3663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도깨비를 내 맘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탈 종 공 고

- 법 명 : 의천(신세업)
- 주 소 : 경남 창년군 도천면 바깥어만길 268 (어만리)
- 사찰명 : 불영사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신화불사 종합안내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 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 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한옥 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 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의 샘나 효모밥죽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조직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을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 잡아함경 –



논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서울중량사찰(급)안내
- 지대 높은산 기도 사찰
- 토지 120㎡. 2층법당. 1층 요사채
- 시내전망좋은사찰. 산책로 입구
- 깨끗하고 30년된 사찰
- 양도가액 : 5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 (급) 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 (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개천면
- 청정지역 지정, 옛 불당골
- 총부지 980평
- 건물(미등기) : 법당, 삼존불
- 창건50년, 산신각, 지장전, 요사채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3560-85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 법당 50평, 방 3개, 공양실,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가액 : 12억
- 확인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소재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2층,청기와,단청)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일주문,산신각등
- 가액 : 3억2천만원
- 특징 : 신도구성이 잘되어있는 도심번화가의 포교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천북면소재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3포7포,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닷집,단청)
- 기타 : 석탑,석등
- 가액 : 10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의 대가람의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참 좋습니다.

전국소재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010-4942-0455

사찰상가주택(급)안내
- 대지 : 210.5㎡ / 건물 : 500㎡ (실제 조금 더 큼)
- 1층 : 찻집(30평)
- 2~3층 : 총 6가구 입주
- 4층 : 요사채(40평) /
- 5층 : 법당(30평)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위치
- 총금액 : 6억 8000만원

010-6656-8118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3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연지암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80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토 지 안 내
- 위치 :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경북신도청 7.5㎞, 예천군청 9㎞
- 법당 : 실평수 30평, 요사채 30평, 40평
- 사찰도량 1,20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3526-7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 뉴타운지역
- 4층건물의 4층 70평, 옥상사용
- 법당 40평, 욕실 갖춘 방2개 원목 불단, 리프트 설치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30만원 시설비는 협의 후 결정

010-9805-0345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리베이터)
- 시설 : A급(시설비 약 1억 소요)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맛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5백만원

010-8525-195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 – 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중방동(시내)
- 2층 극락전 20평,삼존불,후불탱화, 영가단(목재),극락전/3층 대웅전20평, 후불탱화,신중탱화,대웅전(목재),산왕단 요사채 방1칸,옥상20평 사용(요사채로꾸며도 됨) 포교원 통로 단독사용.총 60평 사용
- 가액 : 월세 25만원이나 1년에 300만원(시설비 350만원)

010-4077-274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법당, 거실, 주방, 방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천만원

010-5258-157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있음. 건평90평. 각30평. 3층건물
- 1층. 방3개해수소 / 2층. 법당. 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 연등. 700. 인등. 영가인등. 해우소 3층. 주택. 방3개. 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의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찰 (급)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영봉리 86번지 외 3필지
- 전체대지 : 86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 산세수려 1급수 맑은물
010-3540-0196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 (팔공산)

사부대중 일동

[부설] 아헹가 요가

■ 아헹가 요가 서울 상담센터
☎ 02)540-0955

■ 아헹가 요가 대구센터
☎ 053)753-3550

■ 아헹가 요가 부산센터
☎ 051)526-5262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⑩ 사형수 서채택

돈 2백만 원이 부른 살인과 비극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했던가. 사형수 서채택은 길이 아닌 길을 기웃거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가 한 순간에 사형수가 됐다. 많은 사형수들과의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서채택과의 인연은 나에게 '인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준 공부였다. 그가 사형수가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법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눈앞의 생이 오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 씨는 사형수가 된 후 나와의 인연이 있기 전에 더 지중한 불연이 있었다. 서 씨는 "다음 생엔 출가자로 오고 싶다"고 말하고 형장에서 세상을 달리 했다. 그런 그의 발심은 한 비구니 스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서 씨에게는 어린 두 딸만 있었다. 부인은 오래 전에 집을 나갔다. 서채택이 사형수가 되자 어린 딸을 보살 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서채택의 아이들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 그 때,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서 씨의 소식을 듣게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짐작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인연은 그렇게 닿아야 할 곳에 가 닿는 것이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서 씨의 딸 둘을 거두었다. 서 씨의 불심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 자신의 딸들을 거두어 준 스님, 결국 자신의 뒷일을 거두어 준 것은 부처님이었던 것이다.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다. 1980년대 중반쯤인 것 같다. 서채택은 시골 농부였다. 한 해에 두세 차례 밭떼기 장사를 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농한기에 접어들면 농촌에서는 삼삼오오 이웃들이 사랑방에 모이고 어김없이 화투판이 벌어진다. 서 씨의 마을 역시 그랬다. 문제는 늘 화투판의 성격과 크기다. 놀이를 넘어 도박판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서 씨의 비극도 도박판이 되어버린 그 사랑방에서 시작됐다.

서 씨는 화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구경꾼이었다. 서 씨도 마땅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의 많은 시간을 사랑방에서 보냈다. 그 사랑방이 서 씨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서 씨의 친한 친구가 화투판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 친구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서 씨에게 돈 2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사건의 발단이다. 서 씨의 친구는 날짜까지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서 씨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 2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서 씨의 친구가 돈을 따지 못하고 그 돈을 모두 잃고 만다. 당시의 2백만 원은 큰돈이었다.

서 씨의 친구가 서 씨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다. 서 씨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친구는 오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저녁밥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친구는 서 씨를 보자 서 씨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술잔이 오고 갔고, 두 사람은 얼큰하게 취하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른 서 씨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서 씨의 친구가 버럭 화를 냈다. 서 씨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다. 아니 서 씨가 아니라 서 씨의 친구가

돈 문제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질러
남겨진 두 딸, 비구니 스님이 거둬
감옥에서 佛恩 생각하며 불교 귀의
"내생엔 스님으로 다시 오고 싶어요"

먼저 꺼냈어야 할 말이었다. 서 씨에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다. 서 씨의 친구는 "화투판에서 빌린 돈은 빚도 아니다"며 화투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아니 도리어 화를 냈다. 서 씨는 배신감에 너무나 분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온 것이다. 화가 난 서 씨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고, 두 사람은 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몸 싸움이 점점 격해졌고, 이성을 잃은 서 씨의 친구가 창고에서 곡괭이를 들고 나왔다. 친구는 그 곡괭이로 서 씨의 정강이를 내리찍었고, 그러자 서 씨가 곡괭이를 빼앗아 친구를 내리쳤는데, 공교롭게도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숨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황한 서 씨는 친구의 시신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온다. 서 씨가 친구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바로 자수했다면 애초에 비극은 없었다. 정상참작과 정당방위, 과실치사 등으로 서 씨의 죗값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박수 받을 일은 결코 아니지만 사형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 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형수가 되었다. 죄목이 '살인강도'였기 때문이다.

시체를 땅에 묻은 것도 큰 잘못이었지만 서 씨는 또 다른 실수를 범했다. 서 씨는 시체를 땅에 묻는 과정에서 시체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돈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다. 살인에 강도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아니 네 사람, 아니 나는 차치하더라도 비구니 스님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 눈앞의 인연만이 인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인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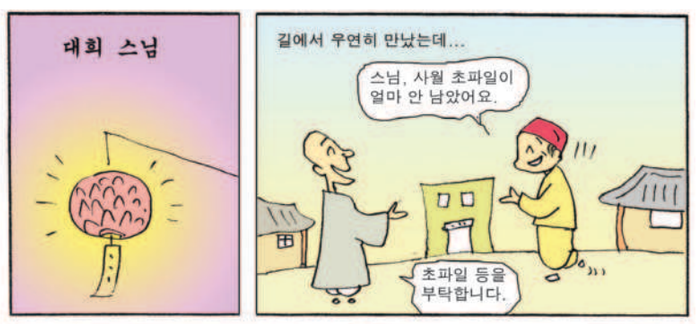
내가 서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다음 생에 스님으로 오겠다"고 자주 말했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의 불심이 무엇보다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자신의 두 딸이 부처님 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서 씨의 마음속엔 그 때부터 부처님이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부처님의 길을 걸었다. 생사를 넘어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다. 늘 사형수 앞에 서면 안타깝지만 유난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서 씨의 딸을 거두어준 비구니 스님은 끝내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했다. 자신이 거둔 두 딸들의 장래를 걱정해서였다. 서 씨가 형집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서 씨의 두 딸을 거두어준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서 씨의 두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착하게 잘 자란 두 딸을 보니 또 한 번 인연의 지중함을 새삼 생각했다. 착한 손길이 또 다른 착한 손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어진 손길을 만나고 갔으니 서 씨의 다음 생은 틀림없이 불가에 들었을 것이다. 이미 자신의 딸을 거두어준 스님을 스치고, 두 딸들 곁을 스치고, 나의 곁을 지나가고, 친구의 곁을 지나갔을지 모른다. 그 때, 나는 스님께 여러 번 고마움의 절을 하고 절을 나왔다. 나 또한 큰 공부였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⑩ 대희 스님 · 크로바 아파트 회장님



길에서 만났기에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요.(步步談) 만날 때마다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큰 대(大), 기쁠 희(喜)라고. 은사스님께서 크게 한 번 웃으라고 지어 주셨답니다. 어느 순간, 문을 열고 크게 웃으려니 웃음이 지워지며 닫힌 문만 그리움으로 고였답니다. 길(道), 길(道), 길(道)에서 만나 보보담(步步談)한 스님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어느 길에서 크게 웃고 계십니까?

물건과 사람은 서로 인연을 맺고 살고 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말이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이 몇 분 계시다. 전에 살던 아파트 회장님도 그 중 한 분이시다. 고루할 만큼 깍두기 예의범절형에 존댓말을 꼬박 쓰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손 모아 인사하는 예의 바른 할아버지이시다.(전직 교장선생님)

하루는 "보살님, 어디 가세요?" 하시며 가까운 절에 갈 때 참배하고 싶다 하셨다. 어느 날, 기회가 생겨 한 번 모시고 절에 다녀오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다. 그 후, 생각날 때마다 떠은 '이 뭣고'로 잡수셨으니 천주교 공원 묘지에서 우담발화 꽃을 피우시라고 축원한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생존 넘어 지혜로 접촉해야 無明 밝혀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3) 자비수관 명상하는 방법

자비손의 역할

자비수관의 명상 방편은 자비손이다. 자비손은 시각화한 심상(心像)의 손으로 몸에 접촉하는 마음의 손이다. 이 자비손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심을 이끌어내고 증장시키면서 탐욕과 분노, 슬픔과 해치고자하는 마음을 제거한다. 또는 자비손은 감로수를 머리위로 부어주는 관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자비손'을 시각화하여 몸을 관찰해 보도록 한다. 물론 자비심이 직접 몸의 구성요소인 흙·물·불·바람·허공의 5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손을 형상화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무형상의 의식이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의식을 움직이려면 의식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손은 움직여서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형상화한 손은 의식을 움직이며 자비심을 전달한다. 그래서 손은 자비심과 궁합이 맞다.

'자(慈)'가 베풀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비(悲)'는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것이며, 손 또한 그런 기능이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심과 손은 닮은꼴이다. 그런데 상상력으로 시각화한 것은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TV화면 속의 영상이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상상으로 시각화한 것도 대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중심으로 한 자비손 움직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비손의 순서

자비손이 움직이는 길은 몸, 입, 마음과 관련되는 중요한 24가지 신체부분이다. 먼저, 마음의 8개 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①정수리 차크라-이마 ②미간에 나 있는 백호 ③두 눈썹 ④두 눈 ⑤오른쪽 귀(귓부분) ⑥왼쪽 귀(뒷부분)-뒷머리 ⑦목 뒷부분 ⑧어깨 ⑨양옆 목으로-귀-코다. 이 8개 부분은 의식을 깨우고 의식과 관련되는 심리, 사상과 철학 등 학문적인 것 또는 심오한 종교적 진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깨운다.

입의 중요한 8개 부분은 ①코 끝-입-뺨 ②구개를 비롯한 혀 안쪽-턱 ③목 차크라 ④겨드랑이-양 옆구리-겨드랑이 ⑤젖꼭지 ⑥가슴-명치-횡경막-갈비뼈-배 ⑦배꼽 ⑧신장을 둘러싼 복부다.

몸의 중요한 8개 부분은 ①생식기 차크라 ②항문-골반-엉덩이뼈-꼬리뼈 ③넓적다리 ④관절들 ⑤무릎 ⑥장딴지 ⑦발가락-엄지발가락-양 발바닥-양 뒤꿈치-양 장딴지-양 허벅지-골반-꼬리뼈-척추 24마디-등-주걱뼈 관절-양 어깨-팔꿈치-손목-손등 ⑧손가락-엄지손가락이다.

신구의 삼업의 순서는 몸-입-마음으로 다시 마음-입-몸의 순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몸에서 시작하여 몸에서 끝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마음-입-몸으로 다시 몸-입-마음의 순서다. 여기서는 모든 행위는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다.

접촉의 중요성

자비손은 자비심이 생기게 하는 매개체이다. 자비손과 몸이 접촉하게 되면 몸에서는 갖가지 반응과 심리현상이 일어난다. 동시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몸의 현상과 심리현상을 정념으로 관찰함으로써 마음은 자비심으로 안정을 얻고 지혜가 계발된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 심리적 장애도 치유된다. 치유 효과의 핵심은 자비심이다.

자비수관 수행의 시작은 자비손으로 몸에 접촉하는 데에 있다. 접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 숨 쉬는 생명은 공기 등의 접촉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접촉은 감각을 일으키고 감각은 사랑과 집착을 낳고 집착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한다.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자손을 둘 수 있다. 부모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고 '종(種)'이 유지되어 나간다. 이때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물질이 유전정보를 가진 'DNA'다. 또 생명은 개체를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음식물을 섭취하여 당을 얻는다. 또 단백질을 소화해서 아미노산을 얻고 당을 태워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아미노산을 필요한 단백질로 스스로 바꾸어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은 매일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능을 생물학에서는 '물질대사' 또는 '대사'라고 부른다. 대사에 필요한 것은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장치로 작용하는 단백질이며, 이러한 작용들은 생물학적인 생명이다.

자비손은 상상으로 만든 방편
효과는 실제 손과 다르지 않아
접촉은 필요하지만 業 만들어
지혜로 관찰해야 보살로 산다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의지 작용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각을 일으키는 생리학적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기관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생각·감각·감정 등은 모두 마음이고 마음의 속성은 대상을 아는 앎이다. 이 앎에 의해서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생각과 감각 등 정신적인 것과 대응관계를 맺는 물리적 조직체와의 결합이다. 그리하여 다른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관계를 맺고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은 몸과 마음의 긴밀한 결합으로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결합체인 오온(五蘊)을 말한다. 오온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는 생명체 모두에게 해당한다. 첫째 감정이 있으며, 둘째 생각할 줄 알고, 셋째 기억을 하며, 넷째 고통을 느낀다.

이 네 가지는 사람과 동물의 같은 점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이 모든 정신과 물질의 결합체들의 생명활동은 접촉이 없으면 죽는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만 먹인다면 어떻게 될까? 아기는 접촉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는 접촉에 의해서 감각이 일어나고, 그 감각 정보가 중추신경으로 또 말초신경으로 간다. 몸의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뇌신경 조직도 형성시킨다. 한마디로 생명활동은 접촉이다. 접촉이 있어야 감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을 아기라고 생각하고 자비손을 어머니 손으로 시각화하여 머리부터 쓰다듬어주는 것은 바로 생명의 활동이 된다.

아기가 태어나고 몇 달간은 감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등의 접촉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접촉이 뇌세포를 긴밀하게 만들어 뇌를 효과적으로 발달시킨다. 특히 신체놀이와 운동 등을 통하여 아기의 뇌를 자극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3년간은 온몸의 감각기관을 일깨우고, 감정기능과 언어중추를 자극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감각, 감정, 언어 등의 뇌가 발달한다. 충분한 접촉을 통해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각지각의 활성화가 아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른들도 시력, 청력, 후각이 약해지면 치매가 올 수 있다. 외부의 접촉 자극이 약해지면 뇌신경세포의 생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현상이다.

지혜로 관찰하는 삼법인

뇌는 우리 몸의 제약 공장이라 한다. 신체에 아픔이 생기면 뇌에서 치유 호르몬을 분비하여 아픈 부위를 치유한다. 일상생활 중에 질병 또는 사고로 다쳐서 몸이 망가져 있을 때에는 몸의 기혈이 많이 막히게 된다. 이럴 때 자비심을 담은 자비손으로 신체의 망가진(아픈) 부분을 쓰다듬어주면 효과적이다. 실제로 손을 움직일 때나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동일하다. 접촉(자비손도 동일)을 통한 감각정보가 뇌의 인체 부분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 정보를 통해 뇌와 신체부위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신체 회복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가동된다.

자비손 접촉을 몸의 건강 측면에서 보면 뇌의 신경세포를 형성하고 활성화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며 젊음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자비손 접촉을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뇌의 자비와 관련된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

또한 접촉은 생존을 의미한다. 생존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 집착과 괴로움이 인간계와 생명계의 생사가 유전하도록 만든다.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사유전 현상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무지를 깨트리는 반조가 필요하다. 즉 접촉은 반응[업]을 낳고, 이 반응은 또 다른 접촉을 낳으면서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모습이 우리 사는 생존의 모습이다.

접촉을 인(원인)과 연(조건)으로 알아차리고, 삼법인의 지혜로 관찰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점차 사라지면서 생사유전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 생존으로서의 접촉이 애착에 근거한 무명촉(無明觸)이라면 지혜로서의 접촉은 고통의 근원인 애착에서 벗어난 명촉(明觸, 연기실상에 밝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로서의 접촉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고 옴이 자유로운 생존[보살의 삶]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자비손의 접촉은 생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일으켜 괴로움의 생사유전을 끊어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설한 바 법이 없다 하는 이유는

질문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는 대목이 자주 나오는데 그 뜻을 저의 사량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설한 바 법이 없다면 저희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해 주셨지만 한 마디도 한 사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것인가.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항상 살아 계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렇지만 부처님 봉축일은 찰나찰나 봉축일이며, 오신 것이 없기에 가신 것도 없이 영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계시어 무시무종 일승공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계의 50%를 모르면서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살아나가시려니까 힘들고 얽매이고, 또 애고나 업보나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타파를 못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일체 만물만생 어느 것이든 아니 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원할 때에는 한 찰나에 응신으로서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다 하고 구원을 청할 때는 항상 칠성 부처가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고 소원을 하면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에서는 지신이 돼 주시고, 독성이 돼 주시고, 산신이 돼 주시고, 아프면 바로 약사가 돼 주시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어느 자리에든, 어느 골골에든 부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삼천 년 전이 바로 오늘이요,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오늘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될 때에 내가 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이름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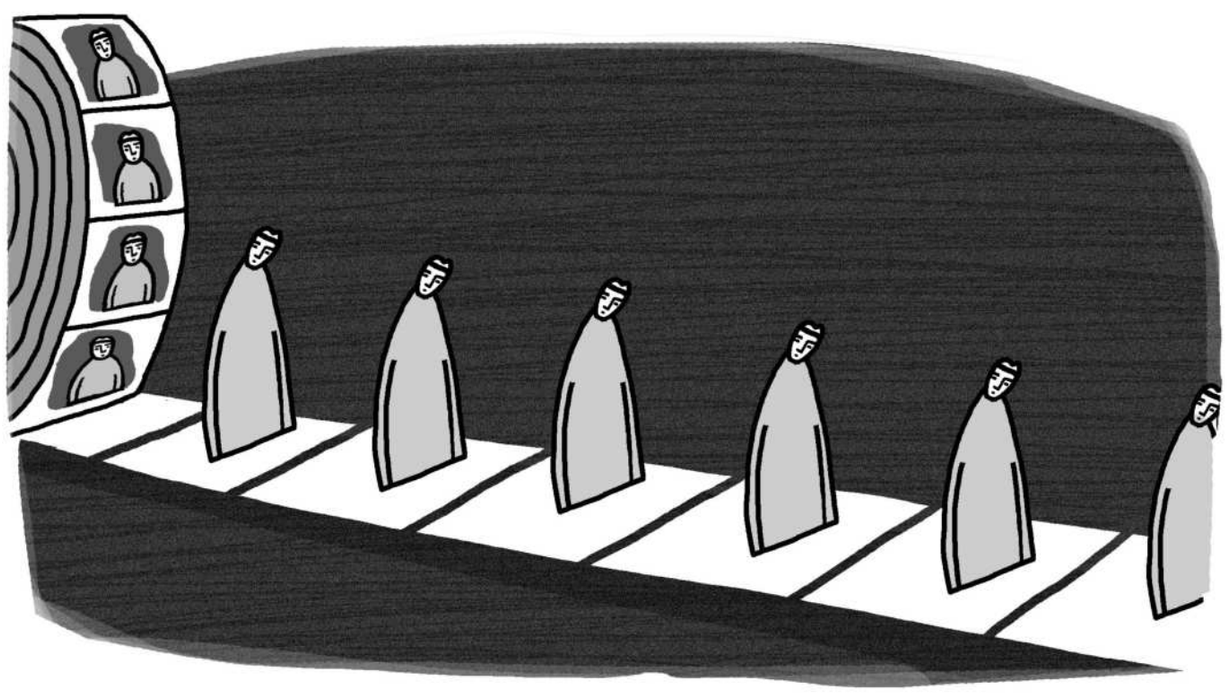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 자생중생부터 제도를 해야 바로 내가 제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생중생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몸속에 생명, 의식, 모습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 즉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치고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영혼에 딸려서, 바로 종합이 돼서 이 세상에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의 여러분 앞에 입력된 것만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현재 스님네들도 그러시고요.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아라.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 바깥으로 얽매이느니라. 길을 가다 엎드러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허공을 허우적거린다면 일어나지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물질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 까닭에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어떠한 말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좋은 일을 했든지 자기가 한 것만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자기가 아는 것만치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일 초 전만 하더라도 과거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이 몰락 녹아지느니라. 없어지느니라." 본래 공해서 붙어 있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관습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거르는 수행을 해야만 되겠기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나오는 그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몰락 없어지는 겁니다. 안에서 좋은 일, 좋은 생각이 나오고 밖에서 좋은 일, 좋은 행동이 들어오고 이럴 땐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는 '악한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선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네 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고초가 많겠습니까.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지요

질문 큰스님께서는 수행하는 데 두 번 죽고 한 번 나투는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요.

답변 죽는다는 의미를 물어 오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걸어 들어오실 때 발자취를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으셨죠? 걸음을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대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그냥 막 돌아가요. 그 도리를 알고 내 주인공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 것이, 돌아가는 거기 한군데다가 뭉쳐 놓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나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포괄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 내가 아프다,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있다' 이러죠? 그런데 진리를 볼 때에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고,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하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을 깨달으면 그 도리를 알게 돼요. 물리가 확 터지니까요. 왼쪽 두뇌, 바른쪽 두뇌 이 상반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말할 땐 이렇게 합니다. 송과체 통과제가 이 모든 작용을 하는 한 점에, 그 뭐라고, 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확산을 시켰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작용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알고 사는 것도 알죠. 나중에 가서는 죽고 사는 그런 것이 바로 무효다 하는 것이 돼요.

내면에서 나쁜 걸 하려고 하는데

질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영원한 친구, 주인공이 항시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놀면서 그냥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런 주인공도 그렇게 맡겨 놓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답변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그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타격을 주는 겁니다. 타격을 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후에 끌고 가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않고, 즉 말하자면 악으로 나간다든가 잘못된 도둑질로 나간다든가 이런다면 그 주인공은 도둑질하게 내버려 둬요. 열 번이고 다 내버려 둬서 인생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중간쯤 가다가 만들어 가지고선 다시 회전을 해서 나와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다시 회전을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지금 댁이 억소리예요,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사람이 나쁘게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

☞ 18면으로 계속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기침,트림,하품,진동,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하품, 빛의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빙의,영가장애,무속병 원인없는 질병,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사업,이혼,사별,별거,자식,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몸,마음,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중단전(감성)+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종 교 인 과 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월 받는 월급(보시금)에서 일정부분 세금 납부하고 (원천징수)
1년 동안 세금 납부 한게 많은지 적은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
1년동안 개인별로 무슨 월급들 받았는지,
연말정산 어떻게 했고,
세금을 신고 한 것과 연말정산 한 것이 맞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에서는
종교인과세관련 신고대행 업무를 실시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며, 6월 15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2018년도 신고업무가 가능합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❶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❷ 대표자 신분증 사본(세무대리 수임 동의용)
❸ 급여내역 : 월 기본급 및 종교활동비
※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함. (예) 종무회의에서 의결승인된 종교활동비
■ 연락처 :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이메일

서류 제출 방법
❶ 우편 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❷ 팩스 접수 : 051-955-2129
❸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 전화상담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힐링 에너지가 아주 좋은 명당터 인도합니다

산 수 배산임수(背山臨水), 전저후고(前低後高) 장풍득수(藏風得水), 남 동 향(南 東 向)

입 지 양지 바르고 아늑하며 앞이 탁 터져 있고 일조량이 적당하며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사방에 호위하는 산들로 싸여 있으며 산맥이 평지 쪽으로 유유히 뻗어 내려 있다. 500여평씩 4~5m의 단차를 두고 둘로 나뉘어 있으며 심한 가문에도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항상 나옴

접근성 서울 요금소에서 1시간 20분 (평일 기준) : 고속도로 104km, 자동차전용도로 7.5km, 마을길 2.5km로 최고의 접근성. 휴일에도 보통 1시간반 ~ 2시간 소요

용 도 힐링센터, 기도도량, 기도원, 암자, 요양원 등으로 최상의 요지

양도조건 980여평, 1필지, 관리지역, 건물 없음 4억원

연락처 010-2723-3278

터 중심에서 아주 강한 치유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스캔하면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 아는 분만 연락하세요.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 17면에서 계속

라서 나쁜 생각도 해 보는 건 앞에 너무 고달픈 일이 생기고 그 참, 살려고 바둥거려도 안 될 때 막생각을 해 보는 수도 있죠. 나는 예전부터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맡겨 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돼서 체험을 해라. 하나하나 체험을 하다 보면 자기는 완성된 참다운 인간이 돼서 훌륭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친구와 정말 그대로 서로 자문자답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생긴다." 이럽니다. 그러니 막생각이 들더라도 '주인공! 내가 이렇게 막생각을 하게 해서 되겠어?'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요, 그렇게 이끌고 가진 않아요.

참마음을 전달하고 살아가려면

질문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전달을 했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삼천 년 전 오늘이나 삼천 년 후 오늘이나 하나인 것입니다."라는 큰스님 법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시간도 공간도 한정되지 않고 오직 참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부처님이 현현히 살아 계심을, 그리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스님을 포함한 모든 선지식들께서 저희와 둘 아니게 항상 하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로 한정지어진 삿된 마음이 아닌 오직 참마음만을 전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물질을 세우고, 내 몸뚱이라고 세우고, 말을 세우고, 이름을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참마음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마음의 전달이 속속히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렇게 좋은 법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없건만 '어쩌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잠깐 일체 만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무정물이나 생물이나 또는 날짐승들이나 낮은 동물들은 다 일 년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생활을 하고, 또는 어떠한 무리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지내고 있고, 기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고, 갖가지로 모두 알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원인은, 바로 몸뚱이와 말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착을 떼 버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떼 버리라고 해서 쉽게 떼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으며, 자성불을 찾지 못한다면 일체 만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못하고 또 일체 만물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는 데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괴롭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응용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생각만 해서, 남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을 해 버리고 맙니다. 또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아니면은 이런 건 못한다고 하는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그르치는 겁니다, 모든 게. 벌레 하나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운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대중을 모아 놓고 "이 세상에 모든 게 왈가왈부하는데", 다시 말하면 '광활한데'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복잡다단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종이 울리니 어째서 너희들은 칠조 가사를 입느냐고 하셨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어째 칠조 가사를 입느냐는, 뭣 때문에 그 칠조 가사를 입느냐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참 심중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중들은 제각기 달리 들은 겁니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중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하셨건만, 그건 말씀이 아닌 말씀이겠지요?

가사에는 칠조 가사, 구조 가사, 오조 가사가 있는데 최초로 가사를 두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한 폭이면 한 폭, 두 폭이면 두 폭, 한 오락지면 한 오락지 이렇게 시주를 한 거니까, 오조는 조그만 오락지들 모아서 한 거고, 칠 폭을 얻으면 칠조로 하고 또 구 폭을 얻으면 구조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 깊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본다면 대답을 가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나 대답하는 마음이나, 마음과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을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거니와 마음 밖에서 어떻게 나를 찾으며,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배짱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수천수만의 조사들의 그 배짱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 한마디, 의미 깊은 말씀 한마디를 내던졌건만 그것을 모른다면, 내 소견만 소견이라고 하지 남의 소견을 모르니까 그거는 바로 귀머거리나 똑같은 얘기죠.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리쌀 뜨물 한 그릇을, 가난한 집에서 바리때에 담아 주는 거를 먹고서 너무 가엾어서 나무 한 짐을 해다 주러 갔노라고요. 나무 한 짐을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은사, 즉 산 부처가 있다 하는 소리가 "이놈아, 어쩌면 그렇게 좁으냐?" 이거죠. 너는 어째 그렇게 좁으냐? 너의 몸뚱이를 등을 받쳐 놓는 등대라 한다면 네 등잔은 마음이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면 거기엔 또 기름도 있어야 하고 심지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심지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냥으로 불을 당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값에 못 가.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무를 한 짐 해줘 봤자 한 번 태워 버리면 그뿐일 것을,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서야 나무 한 짐 한 본의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작대기로 정강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나뭇짐째 그냥 디굴디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거기서 '아차!' 하고선 그 도리를 깨쳤다 합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디 들으면 가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좀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를 하고 그쪽 방면으로 한 번 서 보는,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서 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됐다면 남들과도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폐허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면 공장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체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데다가 가정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여섯 가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를 비유를 한다면 등, 등대, 기름, 심지, 성냥, 사람이 움죽거려야 켭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너는 그것을 뭣 때문에 먹느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칠조를 뭣 때문에 입느냐,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너는 뭣 때문에 칠조를 입느냐' 이런 것도 '밥을 다 해 놓고 먹을 걸 차려놓고 너는 뭣 때문에 그걸 먹느냐' 이런 거나 똑같은 문제죠. 너는 뭣 때문에 사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은 참 심사숙고하고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체가 없으면서 듣고 있고, 나도 체가 없는 마음이 지금 움죽거려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듣는 마음과 하는 마음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마음 안에서 일체 만법의 활용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데에 따라서,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등잔과 등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코드만 가지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섯 가지 방편을 썼지마는 지금은 여섯 가지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한 가지가 여섯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가지만 여섯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한생각에, 코드 하나에 끼웠다 뺐다 할 수만 있다면 안에서 끼고 바깥에서 끼고 할 수 있다면, 안에서 끼면은 바깥에 벌써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가설은 본래 돼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 하면은 벌써 이 세상 가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즉 끊임없는 옛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마음을 전달해서 이날까지 나온 것이지 마음을 전달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예로부터" 하는 소리는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긴데, 그때서부터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마음을 계발하고 마음의 계발이 됨으로써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됨으로써 몸이 바뀌지고 바뀌짐으로써 옮겨 놓고,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는 예까지 온 것인데, 지금 옮겨진 몸만 몸인 줄 알고 있죠. 어저께 굼벵인 줄 모르고 오늘 매미인 줄만 아는 그러한 속 좁은 마음이죠.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한데 뭉쳐서, 일심(一心)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에는 전자대로 끊어지지 않고 옛부터 오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마음을 "예로부터" 했단 말입니다. 옛 자리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돼 가지고 일체 만물의 선장인 부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폭이 넓지 못하고, 팔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주의 근본과 일체 만물의 근본을 한마음에 넣고 굴리지 못합니까? 물론 새들도 재잘거리고 입으로만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으로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니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날아다니는 새도, "엄매 엄매" 하고 우는 소도 심중 깊이 마음으로써 말을 했다면 그건 말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아마 운문 스님도 마음을 전달해서 말을 했는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라도 들었다면 정말이지 이것은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에 참견하지 말고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봤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은 공부하는 거는 틀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으며,
자성불을 찾지 못한다면 일체 만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못하고 또 일체 만물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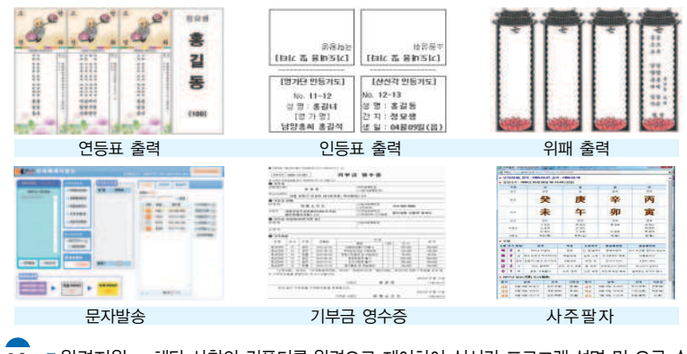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 현불 논단 |

불교 생명존중사상과 낙태문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韓 낙태 34만 2천여 건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미혼자 낙태 건수 1~2% 증가

현재 낙태죄는 법이 금한 상황
모자보호법 근거해 제한적 허용
폐지 · 절충론 분분… 불교 의견 無

경전 근거 윤리 가이드라인 필요
'불교생명윤리위원회' 재구성 시급
낙태 대한 종단적인 숙의 모아야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태안에서도, 그리고 출태를 해서도 독립적인 인간 존재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에 의하면 일부 국민들이 생명윤리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 시술 건수는 34만2,433건이다. 그 중에서 기혼자는 19만8,515건이며, 미혼자는 14만3,918건이다. 출생아수는 43만8,062명이며, 낙태아수는 34만2,433명으로서 출생아수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에서 제1위의 수치이다.

2005년의 발표이후 피임방법 홍보,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 · 양육환경 개선 등이 전개되어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태 시술 건수는 16만8,738건으로서 2005년보다 낮아졌으며, 미국 · 프랑스 · 영국에 이어 4번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전과는 달리 미혼자의 낙태 시술 건수가 해년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는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5월에 발효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낙태법에 대한 찬성론, 폐지론, 절충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견에 의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낙태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 미온적이었던 불교계 종단들이 중심이 되어 교학적인 토대위에서 숙의했으면 한다. 그리고 2004년 조계종에 '불교생명윤리위원회'가 발족돼 4년 여간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와 자료집을 발간하고 해체되었던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돼 종책준비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한다.

불교계의 종책은 붓다의 사상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태어남은 인(因)과 연(緣)에 의해서 존재한다. 인은 원인으로서 중생이 윤회 속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인 업(아뢰야식)이며, 연은 조건으로서 부(=정자)모(=난자)이다.

태어남의 조건은 삼처현전(三處現前)으로서 어머니의 건강상태 · 시기가 알맞고, 부모의 성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중음신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갖추어 지면 중음신은 어머니의 태안에 수태된다. 수태된 태아는 어머니의 태안에서 성장하여 10개월 후에 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 태안에 존재하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을 빌어 성장하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의식, 감각기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하게 되면 한 살로 칭한다. 이 독립적인 생명체는 임산부, 혹은 부모의 것, 즉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장수멸죄경〉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통한 낙태를 살태(殺胎)라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라람(수태부터 1주일)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 =낙태)하게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이외에도 낙태에 대해서 경 · 율 · 론의 삼장에서 다양하게 설하고 있다. 이제 낙태에 대해 불교계 종단들이 숙의하여 사회와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서 교학에 근거한 매뉴얼 준비,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홍보 등의 대안 준비와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社說

사찰, '가족 중심'으로 거듭나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이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주요사찰은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 내에서는 그동안 세대 전승에 실패했다는 진단이 많았다. 그 이면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50대 이상 연령의 불자들로만 구성된 형태에서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르신들은 자신은 사찰에 나가지만 정작 3~40대 부모들은 바빠서, 영유아 ·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서 사찰에 보내지 않는 것이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서울 조계사에서는 가족연등공방이 처음으로 열리고, 서울 봉은사는 가족 포토존 등을 운영했다. 물론 예년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사찰을 찾았다. 속초 신흥사는 연령별 축구대회를 열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제는 더욱더 불교계가 변화해야 한다. 이웃종교계는 이미 키즈카페를 비롯해 놀이방, 어르신 쉼터, 찻집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보는 예배 등으로 참여를 이끌고 있다.

쉼터, 놀이방 등 인프라 구축부터 전통놀이, 가족법회 등 소프트웨어까지 앞으로 불교계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는 많다.

이제 가족이 함께 신행활동을, 여가활동을 즐기는 불교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에 부쳐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봉은사의 시왕도가 반세기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이를 기념해 조계종은 5월 16일 환수 공개식을 했고, 당사자인 봉은사도 같은 날 오후 시왕도를 이운해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시왕 2존이 함께 배치된 매우 독특하면서도 독창적인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 역시 종단과 사찰, 국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로 돌아오게 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 모니터링 중 시왕도 1점을 발견했고, 이를 안 조계종은 '봉은사 시왕도'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환수추진위원회가 미국 경매에서 시왕도를 낙찰받아 환수하게 됐다.

이 같이 '기관의 모니터링- 종단의 확인- 해당 사찰 중심의 환수'는 현재 문화재 환수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나 종단이 재원을 출연해서 문화재를 환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정부 · 종단으로 가게 된다. 해당 사찰이 환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필수다.

봉은사 등 대형사찰의 경우 환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등지에 위치한 소형사찰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환수 자금은 많은 부담이 된다.

안정적인 환수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성보 환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재원을 사찰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성보 환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외로 유출된 많은 성보들이 속히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특별기고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가 수승한 가르침이 되려면 인간 삶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파악된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인도적 역할(役割)이 종교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인간 삶의 가치대로 살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처방, 즉 로드맵을 과학적인 논리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함이고 대자유의 삶의 추구이다. 불교는 이러한 행복과 대자유는 맑고 밝은 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의식이 발전하고 성숙할수록 행복과 대자유도 이에 비례한다. 좋은 의식은 항상 사려 깊고 헌신적이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쁜 의식은 자신의 이기심 즉, 탐 · 진 · 치(貪 · 嗔 · 痴)라는 삼독심으로 나타난다.

2,600여 년 전 위대한 고타마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증득한 삼명의 지혜(三明의 智慧: 宿命通, 天眼通, 漏盡通)에서 인간 삶의 가치를 명확하고 분명히 파악하고 파악한 그 진리를 인류에게 사성제(四聖諦)라고 이름했으며, 이 진리를 통해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체계와 수행체계를 과학적인 논리로 제시하시고 반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의 종교, 즉 초기불교를 과학적인 종교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현대과학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증명방법에 부합하면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의적 증명(Definitional Proof) 방법이다. 이는 쉬운 예로 어떤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들 수 있다. '남자다', '여자다', '회장이다', '사장이다' 등등이다. 이것을 '정의적 증명'이라고 한다.

둘째, 논리적 증명(Logical Proof) 방법이다. 이는 수학에서 '1×0은 0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논리적 증명'이라고 한다.

셋째, 실험적 증명(Experimental Proof) 방법이다. '대기압 1의 상태에서 불로 물을 끓일 때, 섭씨 100℃가 되면 물이 끓는다.' 누구라도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실험을 하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실험적 증명'이라고 한다.

넷째, 관찰적 증명(Observational Proof)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365일이 걸리면서 자전과 공전을 한다든가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은 현상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증명된 것이다. 이것을 '관찰적 증명'이라고 한다.

다섯째, '법리적 증명(Evidential Proof)' 방법이다. 법리적 증명은 범인을 잡는 데 주로 응용된다. 예를 들면 지문 채취나 DNA 분석검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등을 '법리적 증명'이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 증명방법 이외에 불교의 명상적 증명(Meditational Proof) 방법이 추가로 등장했다. 그래서 초기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서중호

수석부회장 강정구
부 회 장 남단아
부 회 장 박경석
부 회 장 구미숙
부 회 장 조현대

신도회 일동

■ 대구 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51길 11,
불교대구회관 (대명 2동)
TEL 053)652-9500 / FAX 053)629-9600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여래는 해탈력으로 몸을 널리 나타내신다.
법신은 허공과 같이 장애도 없고 차별도 없거니와, 그 색신(色身)은 그림자 모양 가지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림자는 방소(方所)가 없고 허공과 같아 체상 (體相)이 없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그 평등함을 깨달을 것이다. 소원성취하소서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증산서로 18번길 34 TEL 051)644-8361 / FAX 051)642-8361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 .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영도구불교연합회

영도구 연합회 회장 호법 및 회원스님
영도구 신도 연합회 김희윤회장 및 회원님
신도연합회 산하 영도구 불교합창단

미룡사바라밀 합창단
한마음선원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영도구연합회 사부대중 정례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
깨끗하게 비우고, 건강하게 채우는 "인체정화 건강 프로그램"

애니원 디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애니원 차



『24가지 초본식물 발효 숙성차』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장』
장운동 활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파비스 애니원 차 & 디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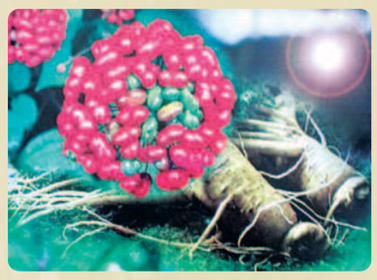
세계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수출하는
30년 효소 전문기업 파비스 애니원 효소(효심 센터)

효소제품 문의 : 010-4131-4283(상현화 보살)

NAVER 애니자임 정연 검색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 삼 액 「골 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 휴대폰 : 016-815-2174